

농어민의 날 제정에 관한 공청회 결과보고서  
**농어민의 날 제정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빈

면

## 며 리 말

本資料는 지난 6월2일 本 研究院이 주최한 “農漁民의 날” 制定方案에 관한 公聽會의 主題發表와 討論者 및 招請人들의 討論內容을 정리하여 엮은 것이다. 그 동안 國家發展과 經濟開發 過程에서 우선순위를 잊고 疎外되어 어려운 與件을 맞으면서도 열심히 일하고 끗끗하게 農漁業을 지켜온 農漁民들의 役割을 부각시키고, 그 労苦를 위로하며, 이들에게 眉持를 심어주는 계기를 마련코자 “農漁民의 날” 制定을 提案하게 되었다.

“農漁民의 날”이 평실상부한 農漁民 自祝의 祝祭日로서, 그리고 農漁民의 役割에 대한 社會의 認識을 모으는 날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農漁村 社會의 傳統風習과 生活慣習에 바탕을 둔 農漁村 文化를 傳承하고 發展시킬 수 있는 方法으로 構想되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중요한 意味와 認識을 모으는 “農漁民의 날”을 制定하기 위해서는 社會 각계는 물론 이날의 主人이 되는 農漁民들의 意見을 收斂해야 할 뿐만 아니라 關聯機關들과의 合議 또한 거쳐야만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公聽會를 開催하고, 그 결과를 정리하여 參考資料로서 利用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바쁘신 중에도 本 公聽會에 參席하여 많은 건설적인 意見과 代案을 提示해 주신 參席者 여러분들께 심심한 謝意를 表하는 바이다.

1990. 8.

韓國農村經濟研究院長 許 信 行

빈

면

# 目 次

## 머 리 말

### 主 題 發 表

“農漁民의 날” 制定方案 .....	鄭 明 采 .....	1
“農漁民의 날” 行事에 대한 意見 .....	朴 淳 鎮 .....	16
討 議 內 容 .....		26

開 會 辭 .....		99
-------------	--	----

### 附 錄

參席者 名單 .....		101
招請者 名單 .....		102

빈

면

## 主題發表

# “農漁民의 날” 制定方案

鄭明采 (韓國農村經濟研究院  
農村社會·福祉室長)

## 1. “農漁民의 날”의 意義

### 가. “農漁民의 날” 制定의 方案

오늘날 우리 經濟가 크게 성장하고 商工業이 國際化할 수 있을만큼 발전하게 된 배경에는 農漁業部門의 犲牲的인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임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國民食糧 調達과 低廉한 農水產物 供給을 위해서, 그리고 欲싼 勞動力의 供給과 原料生產을 위해서 성실하게 일해 온 農漁民들의 노고를 오늘을 누리고 있는 모든 國民들은 잊어가고 있는 것 같다.

農漁業이 經濟發展을 저해하는 要因이 되고 있으며, 農漁民들은 부당하게 農水產物價格을 올리고 富의 分配를 요구하며 불공정한 農水產物輸入 반대와 貿易秩序를 막고 있다는 편견이나 잘못된 認識이 번져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잘못된 認識은 바로 잡아져야 하며, 그로 인한 農漁民들의 소외감은 치유되어야 한다.

農漁業이 基本的으로 自由市場競爭에서 뒤쳐질 수 밖에 없는 원리를 부정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지금까지의 낮은 農水產物價格維持가 農漁

民의 不利한 經濟的 與件을 만들어 왔으며, 國內資本의 商工業 偏重投資가 農漁業의 全般的 衰退를 초래하여 왔음을 인식해야 한다.

이러한 惡條件 속에서 1990年代를 맞는 우리 農漁民들은 國際貿易秩序에의 편입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農水產物 輸入開放의 타격을 또 다시 입게 됨으로써 심각한 사기저하와 生產意慾 포기의 상태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 우리 農政은 이들의 사기를 振作시키고 經濟的 與件을 개선하여 農漁業部門의 활기를 되찾아 주어야만 한다.

지난해부터 구상이 완료되어 금년 초에 國會에서 法制化된 農漁村發展特別對策法은 바로 이러한 經濟的이고 社會的인 農漁業의 與件을 改善하려는 시도였으며, 이미 그 計劃이 遂行중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 또 하나의 農漁民 士氣增進對策으로의 農漁民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農漁民의 날” 제정은 이미 늦은 감은 있으나 지금의 시기를 놓쳐서는 안될 것으로 본다.

“農漁民의 날”을 제정하는 것은 國家發展에 기여한 農漁民의 역할과 農漁業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며, 모든 국민에게 農漁業의 國家產業의 重要性을 再認識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農漁民들에게는 그들의 노고를 위로하는 계기가 되며, 성실한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진정한 農漁民의 날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農漁民의 날”은 우리 農漁民의 傳統的 풍습과 農村社會의 生活·文化的 흐름과 맥을 같이 해야 하며, 農漁民의 적극적인 호응이 가능한 시기적 선택이나 方法的 誘導가 중요한 고려대상이 되어야 한다.

우리 農漁村 社會의 傳統的 生活文化를 볼 때 봄이면 만물의 소생과 금년 한 해의 풍년농사를 祈願하는 예기적 감정을 담은 풍습이 전해오고 있었으며, 가을이면 풍작을 거두어 들여 오곡으로 추수를 감사하는 사례적 풍습들이 이어져 왔던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우리 農漁民의 축제일인 이 날은 위와 같은 意味와 傳統이 계승, 발전될 수 있는 방법으로 만들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이러한 事項들을 包括的으로 收容하면서 農漁民의 士氣振作에 일익을

담당하게 될 “農漁民의 날”은 우리 農漁民들의 자축일이며, 풍년농사의 기원과 풍작을 감사드리는 축제이고, 또한 農漁民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國民的 행사일이 될 것이다.

#### 나. 農事와 關聯된 節氣

農耕을 위주로 생활한 韓民族은 음력을 채택하고, 한 해를 24節氣로 나누었다. 옛 사람들은 지구가 도는 것이 아니라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것으로 알았고, 한 달에 두 절기를 두어 약 15일만에 한 절기가 들도록 하였다.

정월에는 立春과 雨水가 있다. 입춘은 봄 듣다는 뜻이고, 우수는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계절이라는 것이다.

정월이 되면 산야에 빙설이 아직 남아 있다고 하지만 추위도 물려나기 시작하고 나날이 일기도 따뜻해져서 봄기운이 돌기 시작한다. 일년 농사는 봄부터 시작되며, 절기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그러므로 농부들은 農耕에 지장이 없도록 제반준비를 하게 된다.

農器를 다스리고, 農牛를 살펴야 한다. 재거름을 재워 놓고 麥田에는 오줌을 준다. 果木은 껍질을 벗겨 놓고 嫁樹를 하고 上元날에 달을 보고 老農들은 水旱을 짐작한다.

2월에는 驚蟄과 春分이 있다. 속어에, 「우수 경칩이면 대동강물도 풀린다」고 하였거니와 추위는 사라지고 봄이 완연해진다. 초승의 星辰을 보아 豊凶을 짐작하며, 산야에 푸른 쌩이 돌기 시작한다. 경칩에는 동면 하던 별레들이 봄에 놀라 잠을 깨고, 춘분은 밤과 낮의 길이가 같고, 봄 절후의 중간이다.

春耕을 시작하는 한편 春牛를 갈고 담배모를 심고 家宅 안에 있는 나무를 粧點하는데, 특히 果木과 뽕나무를 가꾸는 계절이다. 닭에 알을 안겨 병아리를 까게 하며, 들에 가서 나물을 캐다가 먹으면 구미를 돋구어 주게 된다. 「本草綱目」에 따라 산에 가서 약재를 캐어다 두면 유효하게 쓰일 수가 있다. 채소밭 올타리를 새로 하여 家畜이 들어가서 채소를 해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3월은 暮春이라고 해서 清明과 穀雨가 들어 있다. 청명이란 하늘이 차츰 맑아진다는 뜻이며, 곡우란 곡식이 잘 자라도록 비가 내린다는 뜻이다. 百花는 난만하고 제비도 다시 찾아오는 계절이다. 비가 내릴 것에 對備해서 도랑도 치고 물고도 파 놓는다. 圃田에 穀粟을 갈고 山田에는 豆太를 심는다. 麥田을 매고 논을 갈아 엎는다. 밭과 집 근처에 박·호박·동아·무우·배추·아욱·상치·고추·가지·파 등을 빈 땅없이 심어 治圃를 하는 계절이다. 한편으로 틈을 내어 누에를 치고, 과목을 接木해서 많은 收穫을 거두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

4월에는 立夏와 小滿이 들어 있다. 입하란 여름철에 든다는 뜻이고, 小滿에는 여름 곡식이 조금씩 익어 간다는 것이다. 일기도 화창하며 木花를 갈아 家族의 의복을 장만할 준비를 해야 한다. 雨期를 대비해서 지붕을 손질하고 기와 깨진 것을 갈아야 한다. 百花가 피어 한창이니 養蜂에도 力해야 하며, 무논을 써레질하고 이른 모를 심는 계절이다. 農家에서는 벼농사가 시작되니 차츰 바빠지기 시작한다.

5월에는 茫種과 夏至가 들어 있다. 망종 무렵에는 보리를 베고 벼를 심게 되며, 夏至란 여름철이 다 되었다는 뜻이다. 보리밭에 누런 빛이 완연해서 麥秋를 맞이하게 된다. 보리를 베어 打麥을 하고 한편으로 논에 모심기가 바빠진다. 윤택하게 살려면 쌀외에 雜穀도 있어야 하므로 밭에는 여러 가지를 심고 모종하여 가꾸어야 한다.

6월은 小暑·大暑가 들어 있다. 小暑란 차츰 더워진다는 뜻이며, 大暑는 매우 더운 계절이라는 뜻이다. 炎天에 밭을 매고 논을 매어야 하고 地力이 쇠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풀을 베어 퇴비를 장만한다. 마을 사람들이 슬기로워서 삼구덕을 만들어 紡麻 준비를 하고, 山田에는 메밀을 간다. 오이·참외 등 이른 과일은 流頭날에 家廟에 薦新을 한다.

7월에는 立秋·處暑가 있다. 立秋란 가을이 든다는 뜻이며, 處暑는 그처럼 극성을 부리던 더위도 물러가는 계절이란 뜻이다. 여름에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서 밭을 자주매어 주어야 하며, 논의 피사리를 해야 한다. 논밭에 허수아비를 세워 놓고 새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 김장을 갈고, 장마가 지났으니 집안을 깨끗하게 하고, 곡식과 의복도 舉風을 한다. 박

고지를 켜서 말리고 가지와 오이·참외를 짜게 절이고 장아찌를 담가 둔다.

8월에는 白露와 秋分이 들어 있다. 白露란 이슬비 내린다는 뜻이며, 秋分은 가을철의 중간으로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날이다. 논에서는 벼 베기가 시작되고 밭에서는 豆太를 비롯해서 잡곡을 거두어들이기 시작한다. 모두 익었으니 그 이상 논밭에 두어 두면 落實에서 수확이 줄게 된다. 벼는 베어서 논두렁에 세워 두어 말리고, 잔디밭에는 木花를 베어다 말린다. 秋夕에는 햇곡식으로 떡하고 술을 빚어 흡족하게 먹고 마시고 즐긴다.

9월은 季秋이니 寒露와 霜降의 절후이다. 한로란 찬 이슬리 내리기 시작한다는 뜻이며 霜降은 서리가 내린다는 것이니 날씨도 쌀쌀해서 겨울을 재촉하게 된다. 遠山에 단풍이 들며 추수가 급할 때다. 추워지면 일을 할 수가 없으므로 農作物을 거두어 打作을 하게 된다.

10월은 첫 겨울이며, 立冬과 小雪의 절기이다. 農功은 끝났으나 잔일들이 남아 있다. 무우·배추를 뽑아 김장을 담그는 것이 가장 큰 일이다. 立冬은 경울이 되었다는 뜻이며, 小雪은 첫눈이 내린다는 것이니 이제 本格의으로 시작되는 겨울에 대비해야 한다. 땔감을 장만해서 過冬準備를 하고 창호지를 벌라 찬바람을 막아야 한다. 많은 수확에 감사하고 길일을 택해서 성주를 제사한다.

11월은 大雪과 冬至가 들어 있다. 大雪이란 눈이 많이 올 무렵이란 뜻이며, 冬至는 낮이 가장 짧고 밤이 가장 긴 날로서 겨울이 다 되었다는 뜻이다. 겨울인 까닭에 農耕民으로서는 한가한 계절이다. 할일은 없고 긴 밤에 이야기 책을 읽어 가면서 명석·짚신을 만들며, 여인들은 길쌈과 바느질로 시간을 보내게 된다. 축숨를 자주 쳐내어 퇴비를 만들어 봄에 쓸 준비를 한다.

12월은 季冬으로 小寒·大寒의 절기이다. 小寒은 차츰 추워진다는 것이며, 大寒은 아주 춥다는 것이다. 小大寒 때면 늘 추위가 있다고 해서 小寒추위·大寒추위란 말이 있다. 한 해를 보내는 시기이기 때문에 바쁘며, 설을 앞두고 떡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온다. 五月農夫 고생한

보람이 있어 풍족한 가운데 따뜻한 방에서 편안하게 보내게 된다. 그러나 새해를 맞이해야 하기 때문에 분주하게 쏘자니게 된다. 舊債를 精算해야 하고, 歲饌을 장만해야 하고, 설빔을 마련해야 하며, 舊歲拜와 告詞堂을 하게 된다.

農夫들은 절후에 따라 해야 할 일들이 거의 정해져 있어서 매년 되풀이하게 된다. 農業生產은 계절을 맞추어 適期에 해야 하기 때문에 해마다 같은 일을 반복하게 된다.

## 2. “農漁民의 날” 制定方法

### 가. “農漁民의 날” 選定을 위한 檢討事項

#### ① 季 節

- 봄 : 豊年農事의 祈願과 다짐. 풍어의 기원과 다짐 등
- 가을 : 豊作의 感謝와 돌아올 새해 豊年農事와 豊漁의 祈願

#### ② 月·日 및 曜日 規定方法

- 月·日로 規定하는 一般的의 方式
- 週間中 曜日을 規定하는 서구식 方法 및 基督教 傳統 方式

#### ③ 陰曆과 陽曆

- 農事일은 陰曆에 따른 節氣를 절대시하고 있어 農業의 經營이나 農村社會의 生活文化가 陰曆中心으로 되어 있음을勘案한 陰曆使用의 意味가 있음
- ※ 陰曆으로 된 名節 : 설날, 秋夕날
- 一般的으로 國慶日과 各種 行事日은 陽曆을 中心으로 되어 있음 : 制憲節, 開天節 등

④ 農村의 傳統由來와 風俗(月別)

1月 설 날 : 陰曆 1月1日 새해를 맞는 祝祭

대보름 : 陰曆 1月15日 歲首名節로서 새해農事의 始點이  
라 하여 農事日과 關係있는 일들을 함

2月 머슴의날 : 陰曆 2月1日로 가을 秋收後 오랫동안 쉬던 머슴  
들이 農事日을 準備해야 되므로 이를 慰勞하는  
意味임.

뗏고사 : 陰曆 正月3日 忠南 西海漁村의 豊漁滿船을 祈願  
하는 고사

3月 三辰日 : 陰曆 3月3日 강남간 제비도 돌아온다는 날로 時  
祭를 지내기도 함.

4月 4月초파일 : 燃燈祭 등 佛教意識 (佛誕日)

5月 端午 : 5月5日 수릿날 : 天中節이라고도 함.  
祈福祭(慶北 蔚珍) 共同祭(江原道) 祈雨祭 등을  
지냄.

6月 流頭 : 6月 대보름날로 東流頭沐浴의 略語이다.  
家神祭(全南·慶北) 祈豐祭(慶南 영산, 忠淸道)  
등을 지냄.

7月 七夕 : 陰曆 7月7日 七星祭를 지냄.

百種 : 陰曆 7月15日 濟州道에서는 百中이라 하여 農神  
을 위하는 祭祀를 올림. 호미씻이(全北, 全南 등)

8月 秋夕 : 陰曆 8月15日 한가위

9月 重陽日 : 陰曆 9月9日로 重陽節 또는 重九이라고 함.  
이는 陽數가 겹쳤다는 뜻으로서 흘수가 겹친 날  
중 가장 極陽인 날을 特別히 重陽日이라 함(中國에서 전래함).

10月 時祭 : 陰曆 10月 보름을 前後하여 祖上(5代祖 以下)에  
게 祭祀를 지내는 風習 時祀 또는 時享이라고 함.

家神祭：陰曆 10月 상달이라 하여 집안의 평안을 비는 城主굿, 城主神祭를 지냄. 쌀, 시루떡, 과일 등으로 천신함. 옛날 檀君이 처음으로 백성들에게 집을 짓고 사는 법을 가르쳐 주어 그根本을 잊지 않고 檀君이 내려 온 달에 굿이나 祭祀로 보답하는 것임.

安宅告祀：感謝祭의 성격으로 大門에 항토를 깔고 금줄을 쳐 부정을 막고 햇곡으로 술과 시루떡·과일을 차림(忠淸道·京畿道 土主굿, 全羅道 조상굿).

馬神祭：陰曆 10月 午日을 말(馬) 날이라 하여 시루떡을 만들어 외양간에 가져다 놓고 神에게 말의 健康을 비는 祭祀임 (충청도·경상도·함경도).

萬穀大祭：濟州道에서의 秋收感謝祭로서 햇곡으로 술과 떡·과일 등을 祭物로 하여 本鄉堂에 가 堂神에게 祭祀함.

洞祭：마을중심으로 마을의 守護神에게 평안과 행복을 비는 祭祀로서 秋收感謝祭이며, 햇곡으로 떡과 술을 薦新함. 京畿·忠淸道의 山神堂, 江原·慶北은 서낭당, 慶南·全北은 다산, 濟州道는 本鄉堂에서 지냄.

全羅道 漁村에서는 배告祀를 지내는데 배에 오색기를 달고 등불을 켜 용왕에게 祭祀함. 이 때의 旗를 “年末奉旗”라고 함.

11月 香山祭, 檀君祭 또는 山上祭：陰曆 11月 3일 함경도에서 햇곡으로 음식을 만들어 祭祀하고 아무리 귀한 손님이라도 햇곡을 대접않으며 禁慾, 禁忌함.

팥죽祭：陰曆 11月 동지에 팥죽을 쑤어 祖上에 薦新(천신)함.

12月 削望祭：陰曆 12月 腦日에 祖上에게 祭祀(짐승을 잡아

薦新함).

십이월祭 : 全羅道地方, 부여지방에서 묵은 雜鬼를 몰아내고  
吉福을 맞는 祭儀를 하는 것임.

⑤ 10月과 秋收感謝日로서의 選好傾向

10月의 意味(陰曆) : 옛부터 전해 내려 온 大宗教에서는 檀君의 誕生日로 記念하는 陰曆10月3日을 중심으로 각종의 祝祭와 行事を 해왔음.

특히, 大宗教의 “삼일심고(三一神誥)”에 따르면 “한배님이 甲子年 10月3日 白頭山에 강림하여 125年間 교화시대를 지내고 무진년(戊辰年 BC 2333) 10월 3일부터 治化를 시작하였다” 하여 檀君의 誕日인 10月3日(甲子年)과 건국한 戊辰年的 10月3日을 동격화하여 大祭를 지내며, 이 날을 記念하였음. 이것이 開天節로서 陰曆으로 행해져오다가 1949年 陰曆의 陽曆 利用을 계기로 陽曆 10月 3일을 開天節로 정하면서 본래의 의미와 절기가 변질된 감을 가지고 있다. 이 開天節에는 農民들도 秋收한 農產物로서 檀君에게 大祭를 지내며, 一般人들도 開天藝術祭나 開天祝祭를 가져왔으므로 陰曆 10月 3日(陽曆 11月 19일 '90)을 “農漁民의 날”로 정하는 경우

⑥ 11月과 11日에 대한 農民選好傾向

- 11을 한자로 表記하게 되면 十一이 모여서 土(壠)를 意味한다는 主張임.

〈農民新聞社 輿論調查 結果〉

(1988. 11 ~ 12月)

區 分	4月 初水	5月 初土	10月 終土	11月 11日	其 他	計
人 員	49	18	41	171	16	291
%	16.5	6.3	14	57.6	5.3	100

調查對象 : 農民, 農民團體, 學界, 社會界, 民俗學者, 史學者 등

- 11月은 農業生產을 마치고 收穫을 마친 後의 여유가 있는 時期로서 대중적 참여가 可能하다는 利點이 있음.
- ※ 漁民의 경우는 盛漁期(특히 김·미역 등의 養殖漁業) 收穫期로서 매우 바쁜 時期이므로 전폭적 參與가 어려움
- 陰曆 10月에 農業과 關聯된 각종 傳統風習이 몰려 있는 것은 가을 秋收後의 感謝祭 성격이 强하기 때문이며, 대부분이 陽曆으로는 11月에 속함.

#### 나. 國慶日과 公休日 및 行事日의 分布

##### ① 國慶日과 公休日의 分布

〈국경일과 공휴일, (1990)〉

신정	1월 1일	제현절	7월 17일
민속의날	1월 27일	광복절	8월 15일
3·1절	3월 1일	국군의날	10월 1일
식목일	4월 5일	추석	10월 3일
석가탄신일	5월 2일	개천절	10월 3일
어린이날	5월 5일	한글날	10월 9일
현충일	6월 6일	성탄절	12월 25일

##### ② 各種 行事日의 分布

〈행사일〉

조세의날	3월 3일	권농의날	5월 23일
근로자의날	3월 10일	6·25사변일	6월 25일
해운의날	3월 13일	전매의날	7월 1일
상공의날	3월 15일	철도의날	9월 18일
향토예비군의날	4월 1일	체육의날	10월 15일
보건의날	4월 7일	문화의날	10월 20일
4·19의거일	4월 19일	경찰의날	10월 21일
과학의날	4월 21일	국제연합의날	10월 24일

체신의날	4월 22일	대한적십자창립	10월 27일
기념일		기념일	
충무공탄신일	4월 28일	저축의날	10월 31일
법의날	5월 1일	학생의날	11월 3일
어버이의날	5월 8일	육립의날	11월 4일
재향군인의날	5월 8일	무역의날	11월 30일
스승의날	5월 15일	국민교육현장	12월 5일
선포기념일		선포기념일	
성년의날	5월 15일	세계인권선언	12월 10일
기념일		기념일	

③ 各種 節氣의 分布

〈24 절기〉

절기명	양력	음력	절기명	양력	음력
소한	1월 5일	12월 9일	소서	7월 7일	(윤) 5월 15일
대한	1월 20일	12월 24일	대서	7월 23일	6월 2일
입춘	2월 4일	1월 9일	입추	8월 8일	6월 18일
우수	2월 19일	1월 24일	처서	8월 23일	7월 4일
경칩	3월 6일	2월 10일	백로	9월 8일	7월 20일
춘분	3월 21일	2월 25일	추분	9월 23일	8월 15일
청명	4월 5일	3월 10일	한로	10월 8일	8월 20일
곡우	4월 20일	3월 25일	상강	11월 24일	9월 6일
입하	5월 6일	4월 12일	입동	11월 8일	9월 21일
소만	5월 21일	4월 27일	소설	11월 22일	10월 6일
망종	6월 6일	5월 14일	대설	12월 7일	11월 21일
하지	6월 22일	5월 30일	동지	12월 22일	11월 6일

〈잡절〉

절기명	양력	음력	절기명	양력	음력
한식	4월 6일	3월 11일	종복	7월 24일	6월 3일
단오	5월 28일	5월 5일	말복	8월 13일	6월 23일
초복	7월 14일	(윤) 5월 22일	칠석	8월 26일	7월 7일

## 다. 制定節次

### ① 各種 記念日에 관한 規定

大統領令 第6615號 規定에 의거하여 記念日을 設定할 경우 記念行事는 물론 週間이나 月間을 設定하여 그 附隨的인 行事を 行할 수 있음.

### ② 公休日規定

“農漁民의 날”을 公休日로 規定하는 경우 : 公休日에 관한 規定大統領令을 改正해야 함.

### ③ 現行 各種 記念日

(別表) <改正 1985. 6. 11 大統領令 11703>

<各種記念日表, (第2條第1項關聯)>

番號	記念日名	月 日	主 管 部 處	行 事 內 容
1	租稅의 날	3. 3	財務部	국민의 납세정신을 계몽하고, 세수증대에 관련된 행사를 한다.
2	勤勞者의 날	3. 10	勞動部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의욕을 더욱 높이는 행사를 한다.
3	商工의 날	3월셋째 水曜日	商工部	상공업의 진흥을 촉진하는 행사를 한다.
4	鄉土豫備軍 의 날	4월첫째 土曜日	國防部	전 예비군이 참가하여 향토방위의 임무를 새롭게 다짐하는 행사를 한다.
5	植木日	4. 5	內務部	국민식수에 의한 애림사상을 높이고, 산지의 자원화를 위한 행사를 한다.
6	保健의 날	4. 7	保 健 社會部	국민보건향상을 위한 관련분야의 각종 행사를 한다.
7	4. 19 의 거 記 念 日	4. 19	國 家 保動處	4. 19의거를 기념하는 행사를 한다.

番號	記念日名	月 日	主 管 部 處	行 事 內 容
8	科學의 날	4. 21	科 學 技術處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높이고, 모든 국민생활의 과학화를 추진하는데 관련된 행사를 한다.
9	遞信의 날	4. 22	遞信部	체신의 중요성과 의의를 높이고, 체신사업의 발전을 다짐하며, 관계종사원들의 노고를 위로하는 행사를 한다.
10	忠 武 公 誕 辰 日	4. 28	文化部	충무공의 높은 충의를 길이 빛내는 행사를 한다.
11	法 的 날	5. 1	法 務 部	국민의 준법정신을 양양시키고, 법의 존엄성에 관련된 행사를 한다.
12	어 린 이 날	5. 5	保 健 社會部	어린이들을 옮고, 슬기롭게, 씩씩하게 자라도록 하기 위한 행사를 한다.
13	성년의 날	5月 셋째 月曜日	文 教 部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짚어질 성인으로서의 자부심과 책임을 부여하는 행사를 한다.
14	어버이 날	5. 8	保 健 社會部	조상과 어버이에 대한 은혜를 해아리고 어른과 노인에 대한 존경과 보호에 관련된 행사를 한다.
15	在 鄉 軍 人 의 날	5. 8	國 防 部	재향군인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국가 발전에 관련된 행사를 한다.
16	스승의 날	5. 15	文 教 部	교권존중의 사회적 풍토조성과 스승공경에 관련된 행사를 한다.
17	권농의 날	5月 넷째 火曜日	農 林 水產部	농어민의 노고를 위로하고, 보다 많은 수확을 올려 소득증대에 힘쓰게 하는 행사를 한다.
18	현 총 일	6. 6	國 家 保 勸 部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순국선열 및 전몰장병의 숭고한 호국정신과 위훈을 추모하는 행사를 한다.
19	6. 25사변일	6. 25	公 報 部	6. 25를 상기하여 국민의 안보의식을 고취하는 행사를 한다.
20	전매의 날	7. 1	財 務 部	전매사업의 발전에 관련된 행사를 한다.

番號	記念日名	月 日	主 管 部 處	行 事 內 容
21	철도의 날	9. 18	交通部	기간교통수단으로서의 철도의 의의를 높이고, 종사원들의 노고를 위로하는 행사를 한다.
22	국군의 날	10. 1	國防部	국군의 위용 및 전투력을 국내외에 과시하고, 국군장병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행사를 한다.
23	한글날	10. 9	文化部	세종대왕의 성덕과 위업을 추모하고, 한글의 우수성을 선양하기 위한 행사를 한다.
24	體育의 날	10. 15	體育部	국민체력 향상을 위한 각종 체전과 아울러 올림픽 이상을 구현하는 행사를 한다.
25	文化의 날	10. 25	文化部	방송·잡지·영화 등 대중매체의 사회적 가치를 새롭게 하고, 문화예술진흥에 관련된 행사를 한다.
26	警察의 날	10. 21	內務部	전 경찰공무원 및 관계관이 참석하여 민주경찰의 사명감 고취에 관련된 행사를 한다.
27	國際聯合日	10. 24	外務部	
28	저축의 날	10月 마지막 火曜日	財務部	국제연합창립과 한국동란중 국제연합군이 참전한 뜻을 기념하는 행사를 한다.
29	학생의 날	11. 3	文教部	국민저축정신을 양양시키고, 저축보험 및 증권사업의 증진을 위한 행사를 한다.
30	육림의 날	11월 첫째 土曜日	內務部	학생독립운동의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학생들에게 자율역량과 애국심을 힘양시키기 위한 행사를 한다.
31	輸出의 날	11. 30	商工部	국민식수와 육림을 연결시켜 조속한 국토녹화와 경제적 산림개발을 위한 육림행사를 한다.
32	국민교육 현장선포 기념일	12. 5	文教部	수출산업의 발전과 수출입국을 다짐하는 행사를 한다.
33	세계인권 선언기념일	12. 10	法務部	현장이념 구현을 다짐하는 행사를 한다. 유엔에서의 세계인권선언의 취지의 기념행사를 한다.

〈外國의 農民記念日 事例〉

	美 國	日 本	中 華 民 國
名 稱	추수감사절 (Thanksgiving Day)	신 판 제	농 민 절
日 字	11월 넷째 수요일	10월 17일	입 춘 일
由 來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英國으로부터 청교도들이 최초로 北美에 定着하였을 때 食糧難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며, 당시 가을에 收穫한 食糧을 인디안들과 함께 나눠 먹으면서 신에 감사한 데서 由來</li> <li>청교도정신과 결부 收穫의 기쁨을 神에게 감사하는 國民의 축제 일로 發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을에 햅쌀이 나왔을 때 잇세신궁에 천황이 쌀을 바치는 경농행사</li> <li>2次大戰前까지는 國家的인 행사였으나 현재는 황실의 전통행사로 명맥 유지</li> <li>지구농협 “農休日”運營</li> <li>農閑期 이외의 1일 (대체로 3월 ~ 11월 중)</li> <li>부락의 共同行事日로 部落會議, 學校運動會 參觀, 마을 청소, 촌재 등 行事</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農業의 發展과 農業立國의 實現을 위하여 國家的 記念日로 制定(1941年)</li> <li>慶祝大展 開催 農產品 展示</li> </ul>

註 : 英國은 추수기 一定한 날자없이 教會를 中心으로 農夫들이 각자의 收穫物을 教會講堂에 가져다 놓고 收穫의 기쁨을 慶祝하는 예배를 봄(Harvest Festival) .

## 主題發表

# “農漁民의 날” 行事에 대한 意見

朴淳鎮 (農協中央会 農村開発部長)

## 1. 行事의 意義와 沿革

### 가. 意 義

農漁村은 우리 모두의 고향이며, 뿌리이다. 예로부터 우리 民族의 美風良俗인 두레와 향약 등은 農耕文化 속에서 相扶相助의 모습이 구체화된 것이며, 崇農思想이 스며있는 자랑스런 傳統이다.

그러나 產業社會로 變遷되어 오는 과정에서 農漁業은 商工業에 밀려 열세산업이 되었고, 1970年代 以後 輸出主導와 重工業政策 이면에서 農漁民은 허리띠를 졸라매는 對策없는 인내를 거듭하기에 이르렀다.

1980年代 後半 民主化와 開放化時代를 맞으면서 各界各層의 제몫찾기는 集團의인 의사표시와 行動으로 社會問題를 야기시켰고, 순수하고 인내할 줄만 알았던 農漁民도 組織의인 方法으로 戰爭화하는 경향을 보이게 되었다.

또한 政府는 각 產業別·業種別·職業別·團體別 등 다양한 저마다의 기념일을 제정하여 성대하게 지내오도록 배려하고 있으나, 유독 농민과 어민을 위한 날은 全無한 실정이며, 勸農日이나 育林의 날은 있지만 사실상 農民과 漁民을 위한 날과는 거리가 먼 명목상의 날 뿐이었다.

그러나 農協을 중심으로 1960年代부터 태동한 산발적인 農民 축제가 1970年 中半부터 全國農協에서 새농민대회로 확산되어 사실상의 농민의 날로 지켜오고 있다. 이러한 즈음에 이제 늦은 감이 있지만 農漁民의 날을 政府에서 제정함은 다행한 일이며, 이 날의 행사는 소외감을 느끼는 農漁民에게 사기를 높여주고, 우리 모두의 마음의 고향인 農漁村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특히 輸入農水產物이 農漁民의 설 땅을 위협하는 국제화 시대에 農漁民을 위한 행사는 精神的인 위로와 격려를 드리고, 국민 모두가 農漁民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야 한다.

그리고 “農漁民의 날” 행사는 작게는 農漁民의 自祝行事이며, 크게는 國民和合 次元에서 國民 모두가 박수를 보내는 축제로 승화시켜야 한다.

#### 나. 沿 革(農協中心의 새農民大會)

1961年 8月 15日 舊農業銀行과 農業協同組合을 統合하여 綜合農協을 발족하였다. 농민의 요람이요 農村經濟의 센터로서 機能을 수행할 協同組合이 農民福祉와 農村文化 창달을 위한 행사로서 1960년대부터 다음과 같은 행사를 마련, 개최하여 오고 있다.

- 1963. 10. 農產物 品評會 開催
- 1973. 10. 農協 全利用運動 推進大會 開催
- 1974. 10. 경기 파주·문산에서 최초 시범 새농민대회 개최
- 1978. 9. 全國 單位農協에 새農民大會 開催
  - 1個 郡當 1個 農協 示範 새農民大會 擴散
- 1990. 4. 全國 各 郡單位 協同組織長 修鍊會 開催
  - 開放化時代의 農民 對應姿勢 確立

## 2. 農漁民의 날 行事 方向

- 가. 農漁村과 農漁民에 새로운 希望을 주는 행사가 되어야 한다.  
과거의 形式的이고 展示的인 官為主의 행사에서 벗어나 행사의 主

體인 農漁民을 위하여, 農政의 밝은 未來를 보여줄 선물이 담긴 행사가 되어야 한다. 또한 國際化時代에 우리 農漁民이 對外競爭力を 기를 수 있는 새로운 營農方式의 開發普及 또는 遺傳工學이나 革新的인 科學技術에 의하여 農漁民의 꿈을 이룰 수 있는 營農作目을 開發해 위축되고 소외된 農漁民에게 활력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農漁業關聯 研究機關은 행사기간중 農漁民에게 그간의 研究業績을 공개하여 農漁民의 信賴를 받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나. 農漁民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農漁民의 자부심과 긍지를 갖게 하는 행사가 되어야 한다.

產業化 過程에서 農漁業 勞動力의 都市集中으로 상대적으로 부담을 안게 된 農漁民의 不利益을 精神的으로 보상해 줄 수 있는 위치와 격려의 행사가 되어야 한다. 農漁村에 남아 있는 자가 都市勤勞者보다 못해서가 아니라 고향의 磚을 지키는 愛國의 次元에서 인내의 한계를 넘어서 자기를 초월하여 대처해 온 그 굳은 意志와 產業公害로 온통 汚染된 都市民에게 快適한 定住空間을 마련해 주기 위해 지켜 온 農漁民에게 國民 모두가 감사의 박수를 보낼 수 있는 大會가 되어야 한다. 物質的으로 잊어버린 農漁民의 부담을 精神的으로 補償받는 행사가 되어야 한다.

다. 農漁民 모두가 함께 參與하여 나눌 수 있는 農漁民들의 행사가 되어야 한다.

“農漁民의 날” 행사의 주인공은 農漁民이다. 농어민 축제의 날에 일부 농어민만 모셔다 놓고 客이 나와 주宾 노릇을 하는 행사가 되어서는 안된다. 嚴格한 격식이나 틀에 박힌 딱딱한 행사가 아니라 부담없이 參席하여 함께 기뻐하며, 근심과 걱정을 모두 잊어버리고 하나가 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까지 응어리 졌던 農漁民의 앙금과 소외된 감정을 모두다 녹일 수 있는 행사로

꾸며야 한다. 農漁民 모두가 한데 어울려 어깨춤을 추고, 까맣게 잊었던 향토문화를 재현하는 한마당 잔치를 베풀어야 한다.

라. 農漁民의 營農意慾을 북돋우고, 自立精神을 일깨워 줄 행사가 되어야 한다.

地域社會에서 조상 대대로 이어오면서 고향을 지키며 흙을 가꿔온 農漁民에게 실직적인 所得이 될 수 있는 농사를 지어 투자하고,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農漁業環境이 조성될 수 있도록 政府와 關聯機關은 努力해야 한다. 이러한 科學營農水產技術을 農漁民 모두가 공유하여 근면한 農漁民이 대접받고 잘 살 수 있는 農漁村社會를 만들어야 한다. 長官이 바뀔 때마다 農漁業政策이 변하는 不信時代에 살고 있는 農漁民에게 이제는 政府의 方針이나 政策에 순응하여 열심히 농사짓는 農漁民이 항상 利益을 보는 農漁村社會를 만드는 意志와 決意를 보여주는 기념식이 되어야 한다.

마. 農漁民의 意思가 수렴되고, 農漁民의 要求가 전달되는 행사가 되어야 한다.

政府 主體의 기념식은 農漁民의 사기를 높이고, 農漁民의 要求가 정당하게 받아들여지는 절차도 마련되어야 한다. 일상적인 기념사나 공치사가 되어서는 안되며, 政府와 農漁民이 대좌하여 農漁民의 깊은 감정의 끝이 정부에 전달되고 雙方이 理解하여 갈등과 응어리가 풀릴 수 있는 대화의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農漁民은 國民經濟의 一翼을 담당하는 產業人으로서 營農漁業의 科學化와 協同化, 몸소 실천하는 의지와 결의를 보이는 행사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하여 모처럼 마련되어 축제의 자리로 마주한 자리가 주객이 하나가 되어 農漁業發展을 위한 아름다운 합창을 農漁民과 關聯機關이 함께 만들어 내야 한다.

### 3. 主催別 行事內容

農漁民의 날 행사는 “農漁民의 날” 制定施行에 따른 목적에 부합되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政府制定 各種 記念行事가 직종별 구성원의 權益增進과 社會的 雾圍氣 造成에 있다면 마땅히 그 構成員의 直接參與가 무엇보다도 중요시되어야 하겠다.

따라서 “農漁民의 날” 제정시행에 있어서도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할 事項은 “農漁民의 날”의 주인인 農漁村居住의 農漁民 多數가 直接行事에 參與하여 보람과 만족을 느낄 수 있는 形態로 運營되어야 한다.

특히, 앞으로 地方自治制 實施로 인한 地方化 時代의 도래에 대비하여 “農漁民의 날”行事는 大都市에서 都市民의 고향, 農漁村에 대한 향수를 자극하는 都市民 為主의 中央單位 행사에서 벗어나 農漁民의 삶의 現場인 農漁村에서 農漁民이 主人公이 된 농어민축제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內容의 行事가 되기 위하여는 地方單位(邑·面單位) 行事로 開催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 가. 中央單位 行事

##### ① 主 催 : 農林水產部

地方化 時代를 맞이하면서 權威主義의 脫皮와 틀에 억매인 형식에서 벗어나 農漁民모두에게 實質的으로 도움이 되고 利益이 될 수 있는 行事로 꾸며야 한다.

따라서 中央單位 行事는 政府 主催로 記念式을 마련하여 農漁民의 希望과 용기를 줄 수 있는 메세지를 전달하고 正直하게 營農에 從事해 온 農漁民을 뽑아 시상도 하여 사기를 높여 주어야 한다. 또한 農漁業關聯 研究機關에서는 農漁業과 農漁村發展 施策을 提示하고 農漁業의 長期發展 方向이나 農漁民의 懸案問題 등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는 對話의 자리로 마련되어야 한다.

극히 制限的인 農漁民이 招待된 中央單位 行事에 大規模의 文化

行事나 매스컴의 보도는 都市民의 향수를 자아내는 都市民爲主의行事가 되어 이러한 行事는 農漁民들에게 實質的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大規模 文化行事나 地方飲食販賣, 農水產物 品評會 등 莫大한 경비를 所要로 하는 都市民을 위한 “농어민의 날” 행사는 止揚되어야 한다. 이러한 行事나 놀이는 地域單位에서 그 地域 농어민 모두가 參與한 축제로 치루어져야 한다.

### 〈中央單位行事內容〉

#### 第1部：記念式

- 모범농어민 시상(政府 褒賞)
- 農漁業·農漁村發展을 위한 施策提示

#### 第2部：학술발표회

- 農漁業·農漁村 發展을 위한 研究發表(農漁業關聯 研究機關)

### 나. 地方單位 行事(邑·面單位 中心)

#### ① 主 催：農協(水協, 畜協單位組合)

地方單位 行事는 반드시 “농어민의 날”에 同時 開催할 必要是 없다. 地域 特性과 業種別로 與件이 서로 一致하지 않아 劃一의인 통합행사는 自律性이 缺如되고 參席者의 총의를 그르치는 非農漁民 為主의 行事로 바뀔 憂慮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地方文化 축제나 전통적으로 이어져 오는 행사를 統合하여 “농어민의 날” 행사로 치를 必要是 없다고 생각한다.

鄉土文化의 特色과 역사와 전통을 그르칠 염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농어민의 날” 행사가 그러한 綜合的인 行事を 다 치를 수 있는 時間이나 餘力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地域에 傳統的으로 내려오는 鄉土文化財를 中心으로 하여 “농어민의 날” 行事を 兼하여 농어민축제로 여는 것은 바람

직하다고 본다.

예를 들면 農協의 새農民大會는 1978年부터 지금까지 單位農協 中心으로 每年 開催하여 오고 있다.

그러나 지나친 豫算負擔과 行事에 쓰는 人力, 時間 등으로 무리가 있어 屋外行事는 3年을 주기로 開催하고 있다.

이토록 그 地域 農漁民의 自助的 團體인 農協(水協, 畜協)이 主軸이 되어 行事를 主管하되 共同主催보다는 所屬農漁民의 自律性을 살리고 業種의 特性을 考慮하여 自律的으로 分離, 實施함이合理的이라 생각한다.

〈地方單位行事 内容〉

行 事 名	内 容
第1部 記 念 式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범 농어민 表彰</li> <li>○ 우수농산물 生產 및 우리 農水產物 애용 決議文 採擇</li> </ul>
第2部 농어민잔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권농행사 - 논·밭갈이 경연, 가마니 짜기, 새끼꼬기, 이영엮기, 김발엮기, 물통이고 나르기, 여물썰기, 꽃감깍기, 농기계조립 등</li> <li>○ 권선행사 - 경노잔치, 노인경기, 효도경기, 효자·열녀 표창</li> <li>○ 민속행사 - 줄다리기, 그네뛰기, 농악놀이, 씨름, 윷놀이, 뱃놀이 등</li> <li>○ 문화행사 - 국악경연, 노래자랑, 응변대회, 농수산물 전시회, 향토맛자랑, 농어촌어린이 그림그리기 글짓기 대회 등</li> <li>○ 체육행사 - 축구, 배구, 달리기 등</li> </ul>
식 전 행 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장행렬 - 농악, 민속탈, 농민복장</li> <li>○ 시가행진</li> </ul>

② 후 원 : 中央會, 市·道, 市·郡農協

地方行事의 成功的인 開催를 위하여 市道, 市郡農協이 中心이 되어 行政的인 支援과 他地域의 行事內容에 대한 情報 등을 提供하여 大會의 원만한 進行을 돋는 일을 맡아야 한다.

또한 계통조합간의 緊密한 유대를 통하여 상호 補完的인 관계를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

## 4. 行事 推進上의 考慮事項

가. 豫算確保가 先決되어야 한다.

① 中央單位

- 中央單位 行事는 政府主管에 의하여 開催하는 만큼 政府豫算에 의하여 充當되어야 한다.

② 地方單位

- 農漁民의 生產者 團體인 農水畜協이 主催하므로 協同組合의豫算으로 치뤄야 할 것이다. 다만 個別組合의 經營與件 惡化로豫算確保가 어려워 意慾만 앞설 뿐 아니라 小規模 行事が 되어 모처럼 制定된 “농어민의 날” 行事が 形式的으로 치루어질 염려가 있다.
- 이러한 애로사항을 타개하는 方法의 하나로 共同主催를 들 수 있으나 業種別로 事業時期가 달라 特定한 날을 정하기가 심히 어렵고 事業性格上 農業과 漁業이 판이하여 共同主催보다는 個別主催가 바람직하다.
- 이러한 問題點을 解決하는 方案으로 2~3年을 주기로 行事を 開催함이 좋을 것이다.

나. 地方單位 行事를 農水畜協이 巡迴 主催하는 方案도 있다.

地方單位 行事는 農水畜協이 3年을 주기로 每年 巡迴 主催하는 方案을 생각할 수 있다.

3個 協同組合이 每年 管內 農漁民을 초청하여 행사를 치루는 데는 상당한 豫算과 人力이 所要되고, 業務가 겹쳐 원만한 行事を 計劃하고 推進하기 어렵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代案으로 3個 團體가 돌아가면서 主催를 하면 3年에 한번을 擔當하게 된다.

그러나 業種이 달라 모두가 同參할 수 있는 날을 選定하고, 그 원만한 協助體制가 이루어져야 可能하다는 전제가 불어 있어 쉬운 과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공동주최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代案으로 巡迴 開催方案을 擇하는 것이 쉬우리라 생각한다.

다. “농어민의 날”로 統合制定 不可時 業種別로 記念日을 制定하되, “농민의 날” 行事는 農協이 主管한다.

## 5. 要約 및 結論

“농어민의 날”은 농어민에게 直·間接으로 도움을 줄 수 있고, 農漁民이 주인공이 되는 행사를 마련하기 위하여

- 中央單位 行事의 간소화
  - 中央單位 行事는 政府主催 記念式과 農漁民에 대한 政府褒賞 및 農漁村發展施策 討論會 등 施策方向 為主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農漁民의 긍지와 자부심을 鼓吹하는 行事
  - 地方單位 行事는 (郡單位 以下) 農漁民이 直接 參與하여 營農營漁의 피로와 勞苦를 위로하여 營農營漁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주는 한마당 축제의 잔치로 進行되어야 한다.
- 農漁民 實益의 行事

- “농어민의 날” 行事を 中央單位에서 大規模 行事로 開催할 경우  
축제 雾圍氣 속에서 집단행동을 유발시킬 憂慮가 있어 자연과 안  
면, 이웃사촌같은 人間關係로 맺어 온 邑·面單位의 地方行事로  
內實있게 推進함이 바람직하다.
- 농어민 위주의 行事實施(大都市)
  - 中央單位 行事(大都市)의 規模가 방대해질 경우 都市民에게 農漁  
村과 고향에 대한 향수를 느끼는 도시민의 行事が 되기 쉬워 농  
어민이 居住하는 地方行事에 比重을 두어야 한다.
- 行事 所要經費의 負擔
  - 行事에 所要되는 經費는 農漁民의 福祉增進을 위한 支援次元에서  
政府豫算으로 支援되어야 한다.
- 地域與件에 맞는 實質的인 行事
  - 行事에 所要되는 費用이 過多하여 年例行事로 치루는 負擔을 줄  
이기 위하여 3年을 주기로 地方單位 行事로 自律的으로 開催함이  
바람직하다.
- 既存業種別 農漁民 行事 存立
  - 既存의 業種別 團體가 主管하는 行事는 自律的 實施를 勸獎하되,  
可及的 “농어민의 날”에 實施되도록 계도한다(農協: 새농민 대  
회, 水協: 漁民의 날 行事, 畜協: 가축 品評會 등)

## 討 議 內 容

사회(허신형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두 분께서 “농어민의 날” 제정에 대한 몇 가지 내용과 배경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토론을 해 주실 분으로 각계에서 열여덟분이 오셨고, 뒤에 오신 분들 가운데에는 초청인으로서 서른다섯분이 오셨습니다.

오늘은 초청인과 토론자가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공청회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오신 분들에게는 발언권이 주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토론을 해 주실 분들에게 시간을 아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것처럼 곤욕스러운게 없습니다. 이해하여 주십시오. 토론자 열여덟분의 토론 외에도 방청을 하시는 분께도 얘기를 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도록 최선을 다해볼 생각입니다.

토론의 순서는 지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혹시 이 가운데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빨리 해야만 할 사정이 있다든지 꼭 먼저 말씀을 하셔야 될 일이 있는 분께서는 먼저 말씀을 해주십시오. 의원님들은 국정을 다루시느라 고 광장히 바쁘실텐데 오늘 어떻게 사정이 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평민당을 대표하셔서 오늘 국회 농림수산위원회로 제시는 이희천의원님께서 나오셨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시죠.

이희천(평민당 국회의원, 국회 농림수산위원회) : 허신행 원장님과 또 주제 발표 두 분의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분은 누구나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농어민의 날” 제정에 관한 견해를 피력하기 이전에 오늘의 농경과 농어촌의 실상을 직시하면서 당면한 몇 가지 선결문제부터 제기하려고 합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무릇 국경일이나 또는 기념일의 제정의미는 범 국가적, 범국민적인 의식의 공감대가 먼저 형성됨으로써 소기의 제정 목적에 충실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정목적에 부합되는 국가정책의 정립과 이를 실천하려는 정책의지가 분명하게 담겨 있을 때 그 의의가 성숙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반대로 국민적 의식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못하고, 특히 국가정책의 의지가 불투명하거나 미온적일 때는 아무리 명칭이나 명분이 좋고 길일을 택해서 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념일은 본연의 참뜻을 살리지 못하고 형식적인 요식행사로 전락되고 마는 것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것으로 믿습니다. 또 하나의 예로서 찬란한 문화창출의 기념비적인 한글날 기념식이 20분 행사로 끝나고, 매년 5월 넷째주 화요일로 되어 있는 권농의 날에서도 그 실례를 볼 수 있습니다. 한글날은 그런대로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어 하루를 쉰다는 의미라도 있습니다. 권농일의 경우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런 날이 있는지 조차도 모를 것이 아주 분명하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마디로 지난 30년동안 농정부재의 실상을 단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며, 우리의 농어민이 버림받고 소외되어 있었던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회고하면 지난 1960년대 이후 우리 경제는 고도성장만을 추구하는 산업 구조 속에서 공업화·도시화 위주의 가시적 투자와 정책만이 집중됨으로써 우리 농어촌은 사실적으로 낙후성을 면할 수 없었으며, 결과적으로 산업간·도농간 격차와 불균형을 심화시켰으며, 이것은 마침내 계층간의 의식구조 마저도 커다란 괴리를 형성시켜 왔었습니다. 더욱이 이른바 비교 우위론에 입각한 무분별한 농축수산물의 수입과 대용책없는 시장개방은 명맥만을 유지하고 있는 우리의 농업기반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

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농어촌은 존폐의 기로에서, 우리의 농어민은 생사의 기로에서 방황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농림수산분야의 전문가들만 모이셨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마는 경제성장을 하나만 보더라도 지난 1970년 이후 1988년도까지 광공업부문은 1985년 불변가격으로 257%에 비해서 농림어업분야는 불과 59%로 무려 다섯배에 가까운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지난 1980년도에 GNP중 농림수산부분이 차지했던 비중이 14.7%에서 1988년에는 9.9%로 급격하게 저하되었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오늘의 6공화국은 물론 역대 정권들이 농림수산부문을 얼마나 천대했으며, 무정견 내지 무관심 했는지 단적으로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1980년도에 호당 40만원에 불과했던 농어촌 부채는 10년도 안되는 동안에 호당 530만원을 상회하는 거액으로 증가하여 농가경제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또 1985년까지만 해도 1천만명으로 호칭되던 농어민 인구가 1989년에는 740만명으로 격감되었으며, 1989년 한해 동안만 48만 6천 여명의 농어촌 인구가 이동했거나 전업했다는 통계수치만 보더라도 오늘의 농어촌 공동화현상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다시 한번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산업간의 균형적 발전에 기인한 것이라면 필연적인 성장의 진통으로 맞아질 수 있습니다마는 유감스럽게도 오늘의 현실은 이제 까지 누적된 동정, 경시 내지 정책부재에 기인하고 있음으로써 바로 근본적인 처방과 대책이 어느 때보다 더 절실히 요청되는 시기입니다. 특히, 국제화 시대가 전개되는 1990년대는 어느 때보다 더 우리 농어촌이 시련과 고난을 겪어야 할 위기의 시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는 1997년도까지 507개 종목의 농산물을 단계적으로 개방해야 할 우리의 실정으로는 수입 대체작목의 개발이나 부가가치의 제고문제 등 대응책의 강구가 시급한 과제로 부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보호산업이라는 농수산부분이 육성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따르는 확고한 기반 구축과 항상 보장받을 수 있는 가격지지정책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근본적으로는 농어촌을 살리고 취약한 농림수산부문을 보호산업이라는 차원에서 보다 전향적으로 육성시키겠다는

정책의지의 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인의 견해입니다. 만일 이러한 정책의지가 가지적으로 보여지지 않는다면 1년 365일을 모두 농어민의 날로 정한다 하더라도 형식적인 전시행정의 제물이 될 뿐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농어민의 날이 제정되더라도 진실로 농어민들에 대한, 농어민을 위한, 농어민의 날이 되어야지 관제행사에 피동적으로 동원된 수난의 날이나, 요식의 날로 전락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점을 적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날 새마을운동의 아픈 경험을 상기할 때 본연의 목적은 훌륭했다 할지라도 운동이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집권여당의 외곽단체처럼 변질된 과거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 밖에 농어민들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지난날 전시효과나 나열식 위주의 행사, 그리고 화려함과 성대함을 추구한 나머지 과소비 풍조를 조장하는 것도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농어민의 날이 농어민만의 잔치가 아니라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공동체로 승화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역설합니다. 법정공휴일 지정의 당위성으로 농어촌을 회생시키겠다고 하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 필요합니다. 또 농본사상을 승상하는 풍토를 새로이 창출해 나가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농경문화는 우리 모두의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농어민은 일요일도 없이 꾸준히 일해야 한다는 사실과 그래도 도시의 봉급생활자는 일요일이 있다는 사실, 농어민은 농한기에도 꾸준히 일하지 않으면 안되는 직업이라는 사실 등을 적시할 수가 있습니다.

1991년도부터는 농림수산관련 유일한 법정공휴일인 식목일도 공휴일에서 제외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정공휴일로 지정이 안된다면 본인과 우리 평민당은 농어민의 날 제정에 결코 협조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농어민의 날 제정의견으로서는 매년 11월11일에 별로 이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음력으로 10월초가 적당하다고 하는 의견을 마지막으로 제시하고 저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사회 : 이회천의원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특별하게 긴급한

사항이 없으시다면 다음은 전남 여천군에서 오신 정근진선생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진(전남 여천군 어민) : 저로서는 수산업이라 하면 기르는 어업, 잡는어업, 가공제조업, 수출 판매업이 다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네 가지 일을 밑바닥에서부터 하고 살아왔습니다. 우선 어민의 날을 별도로 정하도록 요청해 달라는 말을 먼저 하겠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면 우리는 현재 어민의 수가 60만이라고 합니다. 더구나 우리 나라는 충청북도와 2개 직할시, 그리고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바다와 연결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또 임업, 농업, 축산업을 하는 사람도 수산업을 겸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민의 수는 100만이 넘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삼면이 바다요, 바다면적을 측정을 해서 육지와 비교를 한다면 바다면적은 육지의 몇배가 될 것입니다. 섬만 하더라도 3, 201개나 있습니다. 그 중에 유인도가 514개, 무인도가 2,867개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국가차원에서 이제 농촌개발, 공업개발, 관광개발 등 별별 주장을 다하고 있으나, 이제는 도서개발 쪽으로 가야 합니다. 앞으로는 골프장 허가를 내륙지에만 해주지 마세요. 전부 섬으로 해 주어도 땅이 많이 있습니다. 섬이나 농어촌도 관광업을 개발해야만 이농이 없어지고 어민도 떠나지 않고 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수산업법 개정안은 작년도에 내놓았는데도 지금까지 보류되어 있습니다. 이번 6월이나 7월달에 심의된다고 들었습니다만, 이렇게 처리하니 농림수산중에서도 수산업이 소외를 당하고 있다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금년에는 농어촌진흥공사가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수산자원개발공사도 해 달라는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보류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농민들이 우리가 먹는 주식물을 재배해서 제공을 한다면 어민들은 싱싱한 단백질이 좋은 생선을 공급합니다. 어민들이 아니면 누가 잡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5대양 6대주에서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어민들이 아니면 싱싱한 단백질 공급을 누가 해줍니까? 그런데도 어민의 날이 없

습니까? 조금전의 주제발표나 국회의원님 발표에서도 농어민의 날을 11월중에 정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우리 어민대표들의 의견을 들어 본 것입니까?

저의 결론은 어민의 날을 별도로 제정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건의합니다. 그 이유는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을에는 여러 가지 행사를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날짜를 또 가을로 정했을 때는 어떤 결과가 초래되겠습니까? 일년중을 비교했을 때 어한기에 다수인이 참여 할 수 있는 날로 정해야 합니다. 어민들의 어한기는 봄 4월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민들의 입장은 4월로 정해줄 것을 요망하면서, 또한 지방의 각종 어업관계행사가 4월, 5월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풍어제, 경로잔치, 노젓기 대회 등등 많습니다. 여기 KBS에서 나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988년부터는 전국 노젓기 대회를 KBS 주관으로 여수에서 개최해 왔습니다. 이렇게 큰 행사를 하고 있는 데도 정부에서는 노젓기 대회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는 모양입니다. 한노대회는 우리 나라의 전통적인 배의 노젓기 대회로 노를 이용한 배젓기 운동을 장려하는 대회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두번째 주제발표 하신 박부장님께서 4월과 5월에 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으니, 4월로 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4월로만 정해진다면 굳이 농민의 날, 어민의 날을 나누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은 저의 개인생각이며, 우리 어민 모두는 어민만의 행사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은 목숨을 걸고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민의 날을 하루 정해서 가족과 친지들이 하루를 즐기겠다고 하는데 다른 말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농업과 어업을 합해서 농어민의 날을 정하면 이 행사가 이루어지겠습니까?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농민의 날은 별도로 정하고 어민의 날을 별도로 정해서 각각 시행해야 될 것입니다. 다만 국가차원에서 두 개의 행사날을 각각 정할 수 없다고 한다면 4월 1일로 정해 주십시오. 그럴 경우 제가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라도 이렇게 우리 농어민의 날을 같이 정했노라고 설득해 줄 수

있겠습니다만 농어민의 날을 가을로 정한다면 우리 어민들은 모두가 참여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민들도 먹고 살아야 합니다. 바로 11월달은 해태, 건어부착에다가 미역도 재배해야 되며, 톳도 만들어야 됩니다. 양식장에는 각종 고기도 집어 넣어야 되지요. 도저히 틈이 안납니다. 그러므로 어민의 날을 별도로 제정해 줄 것을 요청을 하며, 만약에 별도로 정할 수 없다면 4월 1일로 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희천 : 이 자리에 계시는 박경수의원님과 저, 그리고 많은 농수산분과 의원들이 그 문제를 꾸준히 얘기를 해 온 것만은 사실입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우리 정근진대표님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수자원개발공사를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된다고 하셨지요. 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과 농어촌진흥공사법을 농림수산부가 국회로부터 통과시키는 데는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산청이 그 법률을 기안하고 추진하는데 그렇게 적극적이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 시간에 쫓긴 나머지 지난 임시국회에서 결의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 점을 깊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수산청을 수산부로 승격시켜야 한다는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국회의원들은 수산부로 승격하는데 조금도 인색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수산자원의 개발이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모든 자원의 보고가 바다속에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쉽게 안되는 이유가 하나 있지 않은가 합니다. 사면이 바다인 일본이 아직 수산부가 없다는 차원에서 우리 정부에서도 수산부로 승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 공청회를 하는데 농어민의 날이라 했지만 어민이 특별히 거론되지 못한 것을 꼭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아마 여기 나와 계시는 분들도 전부 발제야 어찌되었든간에 이 농어민의 날 행사는 어민도 충분히 여기에 통합되어 하나같이 되는 것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 : 다음은 진길부선생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부(경기 이천군 농민) : 경기도 이천군 신둔면에서 양돈을 하고 있는 진길부입니다. 농어민의 날을 제정하는데 있어서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하는게 좋은가, 안 좋은가 하는 데에는 당연히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명채 실장님께서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 나라 기념일이 33일인데 농림수산부에서 주관하는 것이 있으나 마나한 – 국민들이 잘 모르는 – 권농일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는 전부 각 부서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어민의 날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농어민의 날을 언제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 누가 참여를 할 것인가? 주체는 누구여야 하는가? 이런 것에 대하여 제 나름대로 정리된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지금 농민의 입장에서 우리 지역에서 어떤 행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면, 각 군마다 군민의 날 행사를 공설운동장에서 개최하여 각 읍면대항 체육대회를 합니다. 그리고 농협에서는 새농민대회를 각 읍면별로 합니다. 그 다음은 면에서 매년 또는 격년제로 면대항의 거창한 체육행사를 합니다. 이것 모두는 농민들이 참여하는 행사이고, 예비군의 행사에는 예비군의 날이 있어 그 행사에 참여하고, 새마을지도자인 경우에는 새마을지도자 대회가 있어 거기에 참석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로 민방위의 날, 경찰의 날 등 의 기념행사까지도 개최하여 경찰서장배 체육대회 등 10여 차례씩 공설 운동장에 가서 참여들을 하지만 잔치기분은 안나고 정말로 피동적으로 참여한다고나 할까. 뭔가 흡족한 분위기가 못되는 주민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농민의 날이 실질적으로 제정되었다고 한다면 그날 행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다른 행사들과 마찬가지로 그런식의 읍면별 대항 체육대회 행사만을 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할 것인가? 이런 저런 생각을 해 봅니다.

11월, 12월은 바쁘니 4월에 했으면 좋겠다, 농민의 경우에는 추수 이후에 하는 것이 좋겠다는 등 이런 대립적인 관계에 있는 데, 일단 그 문제는 나중에 거론하기로 하고 10월, 11월 추수 이후에 한다고 했을 경우

지방에서는 여러 가지 기존의 행사와 대회들이 많아서 중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이 행사를 어떻게 진행하고 어떤 식으로 되었으면 좋겠는가 하는 면에서는 여러분의 발표가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이 행사가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잔치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 국경일 행사중에 있지않습니까? 가장 좋은날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추석일 것 같습니다. 추석에는 도시에 나가 있는 아들도, 팔도, 사위도, 형제도 다 시골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연휴입니다. 대단한 국민이동이 이루어지는 이 때는 정말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대단히 큰 행사인데, 추석날 고향에 돌아 온 그들과 놀이마당을 벌리는 축제의 농어민의 날이 좋겠습니다.

우리 나라는 놀이문화가 별로 발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추석 때 고향에 와서도 골방에 앉아서 고스톱이나 치고 보람 있고 향수를 느낄만한 무엇인가 축제가 못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농민의 날을 추석 즈음에 정한다면 동네에 놀이마당을 벌려서 이 놀이마당에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다면 돈이 들더라도 즐거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시골동네의 이야기인데 모내기할 때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들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낙네가 가진 양념반찬을 잘 만들어서 오늘 일하러 온 분들을 잘 대접해야 겠다고 정성을 들여 만든 들밥을 동네사람들이 어울려 먹기도 했는데, 우리 동네는 3년전부터 들밥이 없어졌습니다. 그것은 들밥을 이고 가야할 아낙네도 없고, 들밥을 먹을 짚은 일꾼들도 없어졌습니다. 시골에는 이미 짚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렇게 어우러져서 일하고 들밥을 먹을 일이 없는 것입니다.

다른 지역의 예를 하나 들어 보면 이천군 대월면에는 경기도 농악놀이 대회에서 우승을 한 유명한 농악놀이 패가 있습니다. 거기에 상쇠라고 하는 중요한 역할이 있는데, 이 당당한 자리에 상쇠를 전수받을 사람이 없답니다. 그래서 이 농악패가 전통적인 농악을 잊지 못하고 사라지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농어민의 날이 지정되었을 때는 그러한 농악경연대회 내지 농악놀이를 주축으로 어우러지게 한마당 잔치를 벌일 수 있

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농민의 날을 어느 한 날로 정하지 말고 추석의 연휴가 3일이면 농민의 날을 공휴일로 해서 4일 연휴로 정한다든가 해서 축제기간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즈음만은 KBS나 MBC 등의 스튜디오를 시골로 가져와서 그 어우러져 노는 장면들을 전부 국민들한테 보여 주기도 하고, 한편에서는 농민의 아픔은 어디에 있고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으며, 어떤 방법들이 있는가 등에 관한 학술토론도 하는 기간이 되어졌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좀더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을 어느 한 날만 제정해 가지고 국경일이나 33개 기념일중에 하나를 더하는 행자로서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민과 농민이 한데 어우러져서 함께 즐길 수 있고, 우리들의 전통적인 어떤 문화를 재생하는 농민축제기간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옛날에 임진왜란 당시에 왜병이 쳐들어 왔을 때 이순신 장군이 강강술래를 보급했는데, 남자들은 잠을 자야만 하고 밖에 보초를 서야 하는데 남자가 부족하므로 여자들만 모아 강강술래 춤을 추면서 위세도 보이고 왜군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경계근무를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전통을 살려 추석 저녁에는 강강술래를 동네마당에서 한다든지 어느 국민학교 마당을 빌려서 동네별로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동네에서 수고하는 아주머니들이나, 우리 농어민후계자와 그 부인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할 기회가 되겠지요. 물론 우리 농촌은 농어민의 날이 아니라 단오명절날 쪽빛머리 하고 그네도 타고 하는 행사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추석 보름날 한가위 대보름달 아래서 어울려 놀고 강강술래도 할 수 있게 된다면 이것은 지금 농촌이 처해진 대단히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기위해 농민들이 의욕을 가지고 사기를 스스로 진작시키는 한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네뛰기, 널뛰기 등 전통놀이와 지금 농촌에 있는 각종 행사를 그 기간내에 몰아가지고 한꺼번에 해주면 시간적으로도 절약되고 농민의 축제라는 분위기 조성도 되며, 도시에서 농촌에 온 사람은 즐겁게 놀다 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도시에서 고향을 찾아 온 아들, 딸 자식들이 농민의 날에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인 농민의 날에 나도 참여하겠다고 한꺼번에 어울려서 무언가

를 도우려고 노력한다면 더욱 의미있는 날이 될 수 있겠지요. 그리고 앞에서 예를 든 것처럼 그 방법을 잘 연구해서 한다면 큰 축제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어떻게 농어민의 날을 정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언제로 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데 저의 개인의견으로는 현재 농촌설정으로 봐서 어느날이든 정해서 해야 하는데 별도의 날을 정하면 농촌에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어우러지는 한마당 잔치가 되고 도·농 간의 화합이 되며, 국민적인 화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추석날이라는 대단히 좋은 기회를 이용해야 합니다. 추석날 다음 날로 정하든지 아니면 전날로 정하든지 농어민의 날을 그 부근에 정해서 추석과 즈음해서 국민전체가 참여하는 축제일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박경수(민자당 국회위원, 국회 농림수산위원) : 민주자유당 강원도 횡성·원주군 출신 박경수 의원입니다.

오늘 허신행원장님과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각계각층에서 농어민의 날 제정에 관한 공청회에 이렇게 많이 참여하셔서 진지하게 토론하여 주시는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전에 정근진 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작년 5월 15일날 농민에 대한 제정건의안을 냈었습니다. 그 때 어민의 날에 대한 것은 내지 않았습니다. 농민의 날에 대한 건의안을 제안했습니다. 작년 1월 정기국회 행정위원회에서 이것을 제안설명 할 때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지금 국가에서 지정하고 있는 행사일이 33일이고, 그 외에 행사일로 지정하지 않은 행사일, 즉 예로 말씀드리자면 코의 날, 이의 날, 눈의 날 등 별별날이 다 있는데, 4천 2백만 국민을 먹여 살리는 애국 농민들에 대해서는 농민을 위로하는 날이 없어서 되겠느냐는 제안설명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총무처 차관이 나와서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의원님 권농일이 있습니다. 그러자 “이보십시오. 권농일은 농민들을 두드려 부려서 농사를 많이 지으라는 것이지 무슨 농민을 위로하는 날입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식목일을 얘기했습니다. 식목일은 나무심는 것이지 농어민 축제는 아닌 것이지요. 끝으로 육림의 날이

있다고 했는데, 육림의 날도 4월 5일에 식목을 해서 잘 크는가, 못크는가 관리하는 날이지 이게 농민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측에서는 결국 어떤 형태로든 1천만에 가까운 농민을 더 이상 소외시켜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농어민의 날을 제정해 보겠다는 의도를 보임으로서 오늘과 같은 공청회가 열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앞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농민이나 어민이 당하고 있는 고통은 제가 이 자리에서 더 부언해서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제정날짜를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4월이나 3월로 하자, 가을로 하자고 주장을 하시는데 봄에는 농민들이 농사를 지을 준비의 계절입니다. 무슨 일이고 준비를 할 때에는 마음이 조급하고, 또 이것이 금년에 농사를 지어서 잘 될 것인가, 잘 안될 것인가 염려도 되어서 실질적으로 봄에 한다는 것은 농어민 날로서는 적합치 않습니다. 어민의 경우는 아까 우리 정대표께서 봄 4월을 강력하게 주장을 하셨지만 농민의 날로서는 봄은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제 생각으로는 가을중에서도 11월이 좋고, 조금전 어떤분 말씀에는 11월 11일이 의미가 없다 하는 얘기도 했지만 모든 것이 생길 때는 의미를 부여하면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11월 11일 11시를 그 날로 하자. 그 뜻은 무엇인가 하면 한문으로 쓰면 흙토가 셋이기 때문에 흙에서 나서 흙에서 살다가 흙으로 돌아간다는 이것이 어찌 의미가 부여되지 않습니까? 또 어떤 농민대표는 추석날로 하자 하지만 추석날에 차례 지내기가 바쁘게 성묘가야 하지요, 일가집 찾아가야 하지요, 농민의 날 행사에 나올 사람이 누굽니까? 그것도 어수선해서 되지를 않습니다. 11월 11일 경이면 거의 추수가 끝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날 하루를 농민의 날로 정하든가, 또는 농어민의 날로 정해 가지고 모든 국민들이 정말 우리가 먹고사는 쌀과 단백질 식품인 생선 등 이것을 농어민들이 자기의 생명을 걸어가면서 우리에게 공급해 준다는 감사의 마음을 그들에게 깨우치게 하는 거국적이고 거족적인 농민의 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 대표께서는 10월과 11월이 바쁘다고 하지만 아무리 바쁜 때라 하더라도 하루 정도는

시간을 내실 수 있다고 봅니다. 또 농어민은 멜레야 멜수가 없습니다. 엑시 어민들도 빵에서 살지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다고 바다에서 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양해를 하시고 –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정부에서는 노는 날이 많다고 해서 행사일을 줄이는 판국에 – 어민의 날을 따로 정해달라, 소 키우는 사람은 축산의 날 따로 정해달라, 누에 키우는 사람은 양잠의 날 따로 정해달라 제작기 주장하다 보면 그나마도 할려고 하는 농어민의 날도 중구난방으로 되지 않을까 우려가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주장이 백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소양정신을 가지고 농민은 그래도 800만이 넘어 주축이 되고 어민도 농민과는 같은 뿌리라는 것을 인식하고 4월을 11월로 해서 양해하에서 한 날로 정해야지 분리를 한다는 것은 제 생각으로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어찌 해양수산부를 안만드느냐 걱정을 하셨는데 옆에 계신 이희천의원님이나 해양산업대학을 나온 우리 민자당의 허재홍 의원이 발벗고 나서서 주장하고 저도 열심히 지지했습니다. 저는 솔직한 얘기로 바다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 내륙지방에서 삽니다. 단백질이 좋은 싱싱한 생선은 우리 원주지방까지 오다보면 상해서 짠 고등어밖에 맛못보는 사람입니다. 저는 해양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렇지 만 제가 주장하는 것은 농민은 그래도 덜 위험성을 가지고 농사를 짓지만 어민은 생명을 걸고 일한다는 생각으로 제가 해양산업부관계 공청회도 했고, 모임이 있을 때 가서 열렬히 지지를 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단편적으로 국회의원들이 뭘하느냐는 그런 말씀은 좀 서운한 말씀입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모든 것을 우리가 부정적인 면에서 보자면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이 문제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행사를 한다고 할 때에는 조금 전에 우리 농협중앙회에서 나오신 부장님은 3년에 한번씩 하자는 말이 있었는데, 그것도 말이 안되고 좀 작게 하더라도 매년 해야 합니다. 우리 속담으로 생일날 잘 먹으려고 7일을 짊으니 생일날 아침에는 짊어서 죽었다는 격으로 3년만에 한번 하자고 그것을 손꼽아 기다릴 수도 없는 일입니다. 예산이 따르고 여러 가지로 어렵다면 좀 간소하게 하더라도

매년 농민에게 감사를 하고 어민에게 감사를 하는 날로 제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날은 농협에서 주관을 한다고 하는 것은 솔직한 말씀으로 지금 농민이 100% 농협회원도 아닌 것입니다. 이 날은 누구를 막론하고, 농협조합장이든 아니든 간에 농사를 짓는 사람, 어업을 하는 사람을 위하는 농어민의 날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농협에서 주관을 한다는 것은 좀 어색하다고 봅니다. 이 행사는 지금 체제가 개편 현재까지는 내무부 지시를 받고, 지도는 농림수산부의 지도를 받고 있는 농촌지도소가 체제의 단일화가 될 때에는 이 농촌지도소나 이와 같은 성격의 정부 기관에서 관장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날 하루만은 모든 국민들이 오늘은 농어민의 날이다. 정말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것은 농어민들이 피와 땀을 흘리고 생명을 걸고 고기를 잡아서 주므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산다는 일깨움을 줄 수 있게 되고 많은 국민들로 하여금 농민과 어민을 이해하는 날이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우리 농어민은 바쁘더라도 그날 하루만은 모든 시름을 덮어놓고 함께 모여서 잔치를 하고 정부로부터의 포상이나 표창도 받게 되는 행사도 하여 국가가 농어민을 생각하게 하는 날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국가당국이나 국민들이 전부 농어민을 이해하고 존경하는 날로 만들어야 된다는 뜻에서 다시 한번 추수가 끝나는 11월 11일을 별도로 정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을 마칩니다.

신성순(중앙일보 논설위원) : 이처럼 중요한 모임에 제가 회사일 때문에 조금 늦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지금 여러분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니 잘못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는 농림수산부를 오랫동안 출입을 했고, 그래서 오늘이 자리에 오기는 했지만 농촌실정에 대해서 제가 알아봐야 얼마나 알겠습니까? 농어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얘기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내가 너무 모르는 사람이 이 자리에 나왔으니 죄송스럽고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이왕 나왔으니까 또 제가 무슨 농민대표로 나온 것도 아니고 언론계 입장에서 얘기를 하라는 취지인 것 같으므로 제가 보는 시각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민의 날을 정한다는 이 얘기를 듣고 처음에 저한테 와서 닫는 느낌은 과거 5공화국시절에 어느 사람이 얘기하던 국풍 같은 것을 하자는 얘긴가, 그런 생각이 얼핏 들었습니다. 솔직한 얘기니까 혹시 기분들이 언짢으시더라도 양해해 주십시오. 저를 이 자리에 오라고 한 것은 아마 솔직한 얘기를 듣자고 한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느낌은 정부가 농어민의 날을 정해놓는다는 것이 요즘 개방화다 뭐다 해서 농촌이 어려운 때고, 불만이 많으니까 농어민의 날 같은 것 정해가지고 농촌을 좀 달래자는 얘긴가 무슨 정치적으로 무엇을 보여주자는 뜻인가 하는 느낌이 얼핏 들어서 제가 생각을 좀 해 보았습니다. 우리 나라 농민들이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다는 것은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최근에 와서 수입농산물이다 하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뭐 솔직히 과거에도 우리 나라 정체이라는 것이 농민위주로 된 것은 별로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 시점에서 농어민의 날이 없어서 농민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며, 그 발상이 농민을 위한 것보다는 농정을 위한 것이라는 생각이 얼핏 듭니다. 아까 제가 직접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주제발표 내용도 여태까지 농민을 위한 날이 없어서 소외감을 느끼니까 사기를 높여 주고, 국제화 시대에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니까 정신적 위로와 격려를 해주며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기 위해서 농어민의 날이 필요하다는 요지였습니다. 그러면 농어민의 날이 제정이 될 경우 농어민의 사기가 올라가고, 정신적인 위로와 격려를 받고, 일반 국민들이 농어민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을 제가 좀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제 생각은 별로 그렇게 될 것 같지 않다는 느낌이 듭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농어민의 날을 반대하려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누가 그것을 주관해서, 어떤 형태로 이끌고 나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농어민의 날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한갓 정부의 전시행정, 보이기 위한 행정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정말 농어민을 위한, 농민들이 보람을 갖는

날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농어민의 날을 제정하는 자체는 저는 찬성입니다.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어떤 식으로, 어떤 의미를 부여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어야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기 이전에 제가 잠깐만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농민들이 소외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조금 늦게 들어왔는데, 아까 정선생님이나 진선생님 말씀하시는 것, 그리고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참 좋은 날을 정하자는 얘기인데 어조들이 높아진 것에 대해 참 겁이 났습니다. 말 잘못해서 야단 맞는 것 아닌가 싶어서 말입니다. 그런데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그렇게까지 어조를 높이시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특히, 농어민 관계 무슨 모임 같은 것 보면 상당히 어조가 높은데, 왜 그렇게 강경한 얘기가 나오고 극단적인 용어가 나옵니까? 저는 농림수산부에서 주최하는 회의에도 여러번 가 봤습니다만 그 때마다 어조가 높고 왜 그러냐 왜 그렇게 격앙되어 있는가를 제 나름대로 보기에는 상당히 지금 농촌사정이 어렵고 불만이 많다고 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지 않겠는가 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되었는가를 한번 잠깐 생각해 보고 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주제발표하시는 분도 지적했다시피 산업화 사회로 오면서 지금 농촌 인구가 전국민의 약 19%정도 되며, 국민 총생산에서 농어민·농촌이 차지하는 비중이라는 것은 10%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10% 생산을 가지고 20%의 농민들이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분야에 비해서는 그만큼 생활이 어려운 것입니다. 좀 더 전문적인 얘기로 하자면 생산성이 그만큼 낮다는 얘기가 되고, 또 그것은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얘기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생활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산업사회과정에서 젊은이들이 도시로 가고 공장으로 간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들 하고 심각한 문제로 지적하는데, 저는 그것이 당연한 현상이라고 봅니다. 젊은사람들이 농촌에 다 매달려 있게 된다면 인구가 30% 정도 되었다고 볼때 농촌에서 생산되는 것은 전체 국민생산의 30% 정도나 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10% 그대로입니다. 아마도

조금은 더 늘어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이 농사를 한다면 지금 노는 땅이 많이 경작될 테니까 말입니다. 농업은 그만큼 생산성이 낮기 때문에, 그리고 그 생산성이 점차 더 낮아져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도 농촌을 대표하는 분들과 만났을 때 저는 그런 얘기를 서슴없이 했습니다. 그래서 농촌이 빨리 그러한 상황에서 벗어나는 길이 농민들이 잘사는 길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농업부문은 자꾸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입지가 약화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사는 사람들은 불만이 높아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정부나 국회에서도 농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지 않고 있다고 보며, 신문이나 방송도 마찬가지로 농민은 소외당하고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가를 보면 요즘은 피부로 느끼게 되는데 한쪽 TV에서는 무밭을 갈아엎고 다른 쪽 TV에서는 도시 서민들이 농산물값이 비싸서 못사먹겠다고 아우성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게 무엇인가 고장이 나도 아주 크게 나 있는 것인데, 아무도 그 고장을 고칠 생각을 하거나 방법을 얘기하는 것을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국회, 정부, 농협 모두 그렇습니다. 그것은 유통구조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 투자를 하려면 지금 빨리 유통구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법을 만들거나 정부가 투자재원을 만들거나 농협이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거나 조직을 개편해야 합니다. 이번에 농협의 조직체계가 모두 바뀌었습니다. 조직체계를 바꾸어 자치적으로 운영하며 농협회장도 단위조합장들이 뽑고 민주화로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수협이나 축협도 모두 그렇게 변했습니다. 그런데 이 새로 뽑힌 중앙회장을 하는 일을 들어보니 논공행상하는 경우가 혹시 있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우선 인사조치부터 모두 해 버렸으며, 조직을 개편하여 사람들을 모두 바꾸어 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새로이 조직의 장이 되면 제일 먼저 손대는 것이 인사라고 하는데, 잘모르지만 그것부터 해야 하는 것입니까. 제 생각으로는 정말 해야 될 것은 왜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값이 산지에서는 싸고 도시에서는 서민들이 비싼 값을 주고 사 먹어야 하는 것인지, 어민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어민들이 바다에서 생명을 걸고 잡아 온

물고기 값이 현지에서는 너무나 싼데, 그것이 서울에 오면 엄청나게 비싸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문제를 걸고 이야기하는 조합장을 저는 아직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농어민들은 이렇게까지 소외되어 있는 것입니다. 농민들과 어민들이 스스로 뽑은 기관장까지도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농민들이 무엇을 더 얘기하겠습니까? 그래서 농어민의 날 얘기가 나왔을 때 제가 느꼈던 것은 농민들의 현재의 위치를 한번 돌아보고 농어민의 날이 어떤 날이 되어야 하겠는가 하는 문제를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만 하고, 이 공청회도 그러한 기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앞에서 우리 진길부 선생님께서 농어민의 날은 농어민 축제의 날이 되었으면 좋겠다. 또 잔치날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그것보다 앞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잔치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더 급한 문제는 무엇이며, 왜 우리 농촌이 이렇게 낙후되어 있고, 소외감을 느껴야 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농어민의 날을 정하는 것을 계기로 거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어떤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날로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농어민이 낙후되고 뒤쳐져 있는 것은 생산성이 떨어지고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농민들도 빨리 소득을 높이고 인간다운 생활을 해야 됩니다. 주거환경도 고치고, 그래서 도시인보다 못살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되기 위해서 농어민의 날이 축제의 날이 된다고 그런 문제가 해소될 문제는 아니며 하루쯤 모여서 즐기고 풍악치며 논다는 것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다만 하루를 노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좀전에 진선생께서도 그런 얘기를 한 것이 기억에 남는데, 농어민들이 경찰의 날에도 불려 나가고, 갈 때는 봉투를 가지고 가든지 아니면 뾰박질을 하든지 하여튼 동원이 되시는 모양인데, 그런 일은 우스운 얘기지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인지요. 경찰의 날이면 경찰들끼리 놀아야 하고, 농민의 날에는 농민들끼리 놀아야 하겠지요.

농어민의 날은 적어도 농민들이 1년동안 농사지은 결과를 한번쯤 비교

해 보고 새 품종도 개발하고 새로운 기술을 스스로 도입해서 성과를 올린 사람들이 서로 경쟁하는 날이 되어야 하며, 그래서 저는 가을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수년동안 일본에 특파원으로 가 있은 적이 있습니다만 일본에서는 신품종 개발에 대한 열기가 대단합니다. 우리나라에 들어 와 있는 후지사과라는 것도 한 50년전에 일본에서 개발된 것입니다. 1년에 벼종류가 4~5종씩 개발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농협을 통해서 일단 시험단지에서 키우며, 각 농협에서 나와 실지로 키우는 것을 보고 심을 품종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는 개인적으로도 자기밭에서 끈임없이 품종 개발 연구를 합니다. 새로운 접합을 시도해 보고, 그래서 얻은 결과들을 상당히 자랑합니다. 일본도 물론 농어민에 대하여 정부의 보호가 대단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농어민 스스로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데 농산물이 더 잘될 수 있도록, 더 큰 과일, 더 큰 토마토, 더 큰 가지를 만들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전문서적까지 사다보고 연구를 합니다.

우리 나라 농민들이 그렇게 열심이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좀전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농촌실정을 잘 모르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틀린 얘기를 했다면 양해를 하십시오. 그래서 이러한 방식의 풍토를 마련해 가는 것이 우리 농촌이 잘사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자면 이런 것에 대한 경진 대회를 끈임없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그것이 가을이 되었건 봄이 되었건 상관없이 가을에 해야될 일은 가을에, 봄에 해야될 일은 겨울에 개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도 가을에는 수확농민에 대한 시상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더 범위를 넓혀 우리 농업이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신품종의 개발, 새로운 영농기술의 개발을 포함시켜야만 합니다. 어민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어업양식기술의 개발과 새로운 어종의 개발이 없이는 앞으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는 계기를 농어민의 날을 통하여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며, 그래서 소득을 늘리고 생활향상과 직결될 수 있는 경쟁을 경주하는 우리 800만 농민들의 날로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개별적으로는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각 지역별로 그와 같은 경

합을 통해서 선발되어 올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해에 가장 높은 성과가 어떻게 해서 얻게 되었으며, 그것이 얼마나 경제적인 이익이 되고 필요한 것인지를 다른 농민들 한테 알려주는 계기를 누군가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은 정부가 하든지 농협이 하든지 수협이 하든지간에 나는 그런 일을 하는 날이 바로 농어민의 날이 되었으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그 날을 정하는 데에도 그런 내용과 관련을 시켜서 가장 좋은 때를 선택해야 하며, 정부나 농협도 그러한 날이 정해진다면 그러한 일에 돈을 좀 지원을 해서 그 업적을 알리는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농민신문이 200만부나 보급됩니다. 100만부만 나가더라도 이것은 일반신문 보급률 이상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끈임없이 전달하고 대대적으로 선전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기 선택에 있어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농민을 중심으로 할 경우에는 11월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며, 진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추석이라는 날이 참 의미가 깊은 날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하면서도 추석날이 좋다는 얘기를 했다가는 되게 야단을 맞을것 같더군요. 왜냐하면 추석이라고 하는 날이 어차피 국민적인 명절로서 말하자면 추수감사절 비슷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 날은 온 국민들이 다같이 즐기는 날인데 농민을 생각한다고 그러면서 추석에다가 그 날을 얹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한다면 우선 직접 농촌에 계신 분들이 반발을 할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농민대표이신 진선생님은 추석날을 주장하신단 말이예요. 그래서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그날을 정말 농민들이 원하는 날로 정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농업기술이나 품질개발경진 등이 행해져야 된다고 볼 때는 11월이 좋겠습니다. 거기에다 구태여 의미를 붙여서 11월 11일 11시란 식으로 박의원님께서는 시간까지 정하셨는데 굳이 그렇게 않더라도 11월쯤에 그런 날을 정해서 그 이전에 가을부터 경진대회 같은 것을 읍면단위에서나 군단위에서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경진대회를 해 가지고 올라와서 전국대회가 되는 날이 농어민의 날이 되도록 정한다면 그 날이 전체 농민의 거창한 행사로서 이루어지고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서 시상을 해도 좋겠지요.

그 내용이 아주 괄목할 개발이고 새로운 품종이 나온다면 누가 하지 말라고 해도 KBS나 MBC, 신문 등등에서는 다 소개를 할 것입니다. 지금 언론기관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새롭게 눈에 띄는 것이 없기 때문에 소개가 안되는 것이고 농악놀이, 전통놀이 그런 것은 밤낮 뻔한 것이니까 안하는 것이므로 뭔가 새로운 것으로 한 해 한 해 지나면서 발전되는 모습을 보여줄 때는 그것을 보도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문이라든가 방송의 생리라는 것이 새로운 것을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끈임 없이 새로운 것을 농촌에서, 어촌에서 제공을 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난 농어민의 날로 정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농민의 날과 어민의 날을 별도로 정하는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는 처음부터 농어민의 날을 함께 묶어 놓는 것을 보고 좀 이상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농민하고 어민은 생활기반이 다르고 정신도 다르고 생활리듬도 다릅니다. 그런 것을 한데 억지로 묶어 놓는다면 앞으로 농어민의 날에 얼마나 대단한 걸 정부가 해주고 혹은 농협이 해줄지는 모르지만 경비가 많이 들어서 한데 묶어 놓은 것인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민들이 별도로 4월 1일이 좋다든가 고기잡이 하는 사정에 맞추어서 가장 풍어기때 축제기분도 나고 새로운 성과를 자랑할 수 있는 시기가 있다면 그때를 어민의 날로 정해주면 되는 겁니다. 저는 그것에 인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차피 눈의 날, 코의 날 무슨날 해서 삼십몇 개가 되는데 거기에 하나 더 늘어난다고 해서 나쁠 것도 없고 그 일이 그렇게 대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얘기한 것은 앞에서 제가 정확히 듣지는 못했지만 공휴일로 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저는 공휴일로 하는 것은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말씀드린대로 지난번의 국풍처럼 정부에서 주도해 가지고 농민들한테 생색이나 내려고 하는 게 아니냐 하는 인상을 줄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저와 같이 언론계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이나 그런 것을 느낄련지는 몰라도 객관적으로 보면 농어민의 날 제정이 그런 인상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더하여 좀 전

에 말씀드린대로 노는 날을 또 정한다는 것은 곤란하며, 추석날이 농민들 노는 날이므로 농어민의 날을 또 노는 날로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농민의 날 별도로 정하고, 어민의 날 별도로 정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행사를 전국적으로 개최하면 새로운 각 분야에서 고민하여 만들어진 새로운 품종들이나 새로운 기술들을 전시할 수가 있게 되겠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성의입니다. 이러한 일에 농협과 정부 또 국회에서는 적극 제공을 해 주시고 돈 아끼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나라도 이제 상당히 경제수준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돈을 아낄 필요 있습니까? 소련에다가 뭘 어떻게 해주고 차관을 주고 그런 얘기가 나오는 마당에 농민들한테 몇푼 아낀다는 것이 말이 안됩니다. 지원은 충분히 하되 노는 날로 할 필요없으며, 그야말로 진정한 농민의 날이 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줄 수 있다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소견입니다. 감사합니다.

강춘성(전국농민단체협의회장) : 국회의원이 두 분 오셨고, 또 고위공직자도 계십니다만 이 자리에서 잘했다 하고 큰소리 친다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 말은 꼭 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연 농민을 위해서 무얼 했길래 우리 나라 농업을 위해서 무얼 했길래 그래서 농민이 어떻게 살고 있길래 이런 말씀을 큰소리 치면서 할 수 있는가. 물론 노력을 하신건 압니다. 물론 농민이 없는 장소에 가서는 농민을 위해서 일 했다고 큰소리 칠 수도 있겠습니다만 농민앞에서는 가급적이면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제일 먼저 주장하고 싶은 것은 농민의 날을 제정하려는 배경이라고나 할까요.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부터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쭉 논의 되는 것을 보면 물론 신성순의원께서는 공감이 가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만은 그 농업 자체의 중요성 보다는 농민을 위로한다든지 또는 보상한다든지 또는 농민 스스로가 자긍심을 가지고 어떤 한마당 축제를 벌인다든지 하는 측면에서 농민의 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엇인가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어디까지나 농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래서 농

업의 주체가 되고 있는 농민들이 과연 어떤 고생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또 농협의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들을 심도있게 다루는 일이 더 선결문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농업이 필요한가 필요하다면 정책의 방향은 어떻게 해야되고 어떻게 뒷받침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과 동시에 꼭 존치되어야 될 농업이라면 이건 국민적 합의 없이는 살아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농민이외에 사람들. 특히 대표적인 것은 재벌이며, 그 외에 대다수의 국민들은 농업에 대해서 중요성을 인식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민의 날은 바로 농업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날이 되어야 될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농민의 날은 단지 농민만을 위한 날이 아니고 온 국민이 농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농민 스스로는 역시 자긍심을 갖는 날로 만들어져야 된다고 저는 농어민의 날 제정에 대한 배경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외 다른 날들에 대해서는 다음에 시간이 있을 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제 말은 그치겠습니다.

권세원(경북 안동군 농민) : 먼저 때늦은 농민의 날이지만 제정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우리 중앙일보의 신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농민생산이 국민총생산에 10%밖에 안된다고 하셨는데 재투자 했을 때 몇십 %가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영농인들이 말이죠. 농사가 전혀 안되었을 때는 외국에서 수입해다가 먹으면 됩니다. 하지만 2차적으로 실업문제는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하는 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저 자신은 공고를 나왔으며,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만 1984년도에는 도 증산왕을 했고, 지난 1989년도에는 전국 쌀 증산왕을 했습니다. 그런 기록을 내기 위해서 그 분야에서는 나름대로 노력했으며, 바로 신국장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발전경쟁이 필요합니다. 농촌에 묻혀서 살면서도 우리는 후계자들이나 4H 회원들과 영농기술정보를 주고 받으며, 지도방문도 하는데 이런 방법들이 상당히 좋은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제 두 의원님들과, 그리고 우리 농산부 국장님에게 건의하고 싶은 것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던지 농촌을 위해서 경제활성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농민의 날이 제정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행사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기는 했지만 사실 우리 농촌에 가보면 자기 나름대로의 농사를 열심히 짓고 있는데, 무슨 무슨 행사라고 해서 여기저기서 오라고 하니까 실제로는 농사를 회방놓게 되는 실정이라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어제, 그저께 모내기 기계이양하고 부랴부랴 쫓아왔습니다. 사전에 통보나 자료 하나없이 이런 행사가 있으면 미리 전달을 해가지고 농민들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도록 즉, 후계자 회원이라든지, 4H 회원들이라든지, 인근 농민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또는 행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싶어하는가 하는 것도 들어보고 의견을 모아 공청회에 오는 사람들이 알고 왔어야 합니다. 제 개인 생각으로는 농어민의 날은 11월로 하는게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농사를 잘 지어 놓은 것을 보았을 때 자신을 다시 반성하고 다짐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며 그와 같은 신기술을 터득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면 이런 방향도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달영(충북 충주축협조합장) : 충주 축협조합장입니다. 여러 선생님들께서 농어민의 날 제정의 의미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고, 또 그동안 농어민들이 우리 국민계층에서 소외당하고 있다는 율분도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겹치는 말씀은 안드리고 오늘은 농어민의 날을 제정하는 공청회니만큼 거기에 대한 사항만 간략하게 메모해 온 것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농어민의 날의 제정이 뜻이 있느냐, 없느냐에 관한 것. 또한 이미 우리 국민들의 전체숫자에서 농민의 비중이 몇 %냐 그런 걸 따진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때 늦은 감이 있지만 누가 제안을 했던 또 정부가 제안을 했던 농어민들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이런 날을 하나 정한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현재 우리 나라 각 지역사회에서나 또는 전체를 통털어서나 무슨 문화행사를 한다고 하면 거의 절반 이상이 농경문화에서 나온 문화행사가 중심이 되고 있으며, 그것이 행사 때 재현되고 있을 뿐이지 사실 도시문화는 별도로 수립된 것

이 크게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농경문화가 우리 나라의 문화에 대종을 이루고 있는 데, 근래에 와서 농업과 농촌이 소외되고 또 의욕이 상실되고 폐촌위기에 와 있다 보니까 크게 소멸되었고 이제는 농촌의 문화가 전시문화, 예를 들면 방송국이나 또는 전문연구기관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행사나 발굴하는 의미의 행사 등등으로 그치고 있는 형편입니다. 실지로 농촌에 가보면 일손이 없어서 하고 싶어도 옛날에 있었던 각종 문화행사를 할 수가 없고 향수를 느껴도 인적자원이 부족하고 재원이 부족하고 또 정신적 여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화행사 마저도 자꾸 소멸되어가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농어민의 수적인 감소나 이런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아직도 농촌에 뿌리를 두고 있는 17%의 농민들과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정신적인 자긍심을 심어주고 또 앞으로 좀더 의욕을 북돋아 주며 오랜 동양의 미풍 또는 풍물과 전통의 맥을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역시 농어민의 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에는 거론이 된 바 있습니다만 권농일이나 식목일 또는 육림의 날 행사는 제가 보는 견해로서는 그것은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을 위로하고 존재의식을 높이기 위한 날이기 보다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권업적으로 또는 생산적으로 그리고 국가를 위한 하나의 방약으로 그 날을 정했지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의 위로나 존재의식을 가지고 정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어민의 날은 그것이 축제날이 되든 아니면 중앙일 보논설위원회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가치관 또는 새로운 농업발전을 위한 품평회 등의 어떤 형태가 되든 별도의 농어민의 날은 정해지는 것이 좋겠다고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이제 정신적인 의미를 주어 농어민의 날을 제정했다 하더라도 그것에 관심을 가진 상정성은 높이 평가하지만 과연 최근에 우리나라 농업정책이나 정부정책이 농민들에게 해온 무성의 한 정책을 볼 때 이것이 하나의 행사날로만 정해 놓고 마는 것이 아닌가 우려되므로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되며 어떻게 하면 농민들의 의욕을 다시 북돋아 줄 수 있겠느냐는 측면에서 좀 더 깊은 배려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결국 그렇게 되다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농어민들의 경제적 지위를 끌어올리는 데 정신적 뒷받침이 되는 날로 되었으면 좋겠

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우리 국민들은 옛날 전통에서 보면 주제발표를 하신 정선생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농한기에는 설이나 정월대보름 같은 행사가 있었고 농번기에도 단오나 백종 등의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낙천적으로 일하면서 가무도 하고 그렇게 백의민족의 전통을 만들어 온 것만은 사실입니다. 다만 산업사회의 발전과정에서 소멸되고 소외되었기 때문에 사라진 것이므로 이것을 어떻게 다시 복돌아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우리 전선생님은 계절적으로 봄이 좋다, 가을이 좋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계절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린다면 역시 모든 희망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봄에 했으면 좋겠는데 봄에는 우리 나라의 지금 현재 농업의 상황이 비닐농업이나 특수시설재배 등으로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농업의 형태가 과거 음력을 기준으로 해서 내려오던 전통하고는 많이 바뀌져 있어서 봄이 되면 굉장히 바쁘고 정신적으로 뭔가 준비해야 되는 시기라서 제 개인생각으로는 역시 한 해를 다 마무리 해서 내 창고에 쌓아놓고 조용한 시기에 우리가 반성하는 의미도 가질 수 있는 11월 쯤이 좋겠습니다. 또 구체적으로 날짜까지 정하셨습니다만 국경일이나 다른 행사도 10월중에는 대개 마무리가 되므로 11월 11일 정도면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우리 나라는 아직 요일을 가지고 정하는 습관에 있어서는 농촌 뿐만 아니라 도시에서도 아직 그렇게 습관화된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곤란하고, 또 농민들은 날짜를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매일 들에 나가서 영농을 하다보면 날짜관념이 좀 약해져서 기억하기가 어려운데 11월 11일로 하면 그래도 좀더 기억하기도 좋고 편리한 방법이 아니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행사방법에 있어서는 농업부장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새농민의 날 행사와 겹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한 가지 예로 저희 지역에서는 이런 행사가 있습니다. 197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그 지역 국회의원 또 행정부가 주관이 되고, 그 지역 농·축관련 단체들로써 우리 지역에서는 축협, 원협, 농협, 양잠조합 등 이런 농민단체, 하나의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5월에 단오제, 수릿날, 가을 백종 등의 행사를 대대적으로 한 바 있습니다. 그 행사의 주체는 참여하는 국민의 주체였습니다. 행사

를 진행하는 주체가 아니라 국민의 주체였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아직 농촌에 젊은층이 많이 있었을 때였으므로 4H회원들과 농촌지도자 4H선배 등 그런 분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 때의 행사는 전선생님께서 말씀하신 한마당 잔치도 되면서 나름대로 농민들의 자존심을 높일 수 있는 것이였는데 그것이 어떤 연유로 해서인지 정권이 바뀌면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때 참여했던 분들이 최근에 모여서 그 행사가 계속 존속되지 못한 것을 아쉬워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농민들의 문화에 뿌리를 우리가 농어민의 날만 정해놓고 거기에서 의미를 찾지 못한다면 가치가 없기 때문에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농민들에게 의식을 심어주려면 역시 지금 군단위나 도단위에서 행사하는 것처럼 행정기관에서 자의적으로 어떤 날짜, 행사를 정해놓고 농민들이나 주민들을 끌어모으는 전시적인 행사가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저의 개인생각으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거주조건을 기준으로 한 마을단위에서부터 어떻게 이러한 전통이 솟구쳐 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면단위로 어느 기관이 행사를 주최할 경우 지금 농촌에 가보면 40대 중반이 가장 젊은층이며, 어느 곳은 50대가 가장 젊은층으로 되어 있는 데도 있는데 그 분들을 자꾸 면단위, 군단위로 끌어내는 결과가 되므로 그러한 전시적인 행사를 하기에는 꽤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농어민의 날을 전통적이고 문화적인 행사로 하려면은 역시 그 마을단위에서 소박하게 마을사람들의 뜻에 맞게 행사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군단위 도단위로 끌어올리려는 것은 2년에 한번 또는 3년에 한번씩 한다든가 그런 체계를 짰았으면 좋겠으며, 중앙단위에서는 역시 발표자가 제안하신대로 기념행사라든가 심포지엄 또는 포상 이런 것을 중심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국회의원 두 분께서 모두 자리에 앉계십니다만은 저 생각으로는 이왕에 농어민의 날을 제정하려면 임시국회든 정기국회이든 국회에서 농수산분과위원회만이라도 좋고 또 확대하면 총회에서라도 이 날의 제정에 필요한 요식행위, 즉 결의안이라도 하나 채택을 하고 헌장이라도 하나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지금은 지방행정기관에서 예

산을 관장하면서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었으니 마을단위까지 문화보조 사업측면에서의 지원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예산문제까지도 국회에서 상세하게 다루어 농어민의 날 제정이 구두만으로 그치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는 오늘날 농민의 권리가 이렇게 땅에 떨어진 마당에 이 농어민의 날을 정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는 문제나 또 이 날을 문화적인 행사로 할 것이냐, 아니면 실질적인 이익이 되는 행사로 할 것이냐 또는 정신적인 행사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일단 농민의 날을 정해놓고 다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 모두에게 새로운 인식을 심어주면서 동시에 그날을 기리는 방법은 각기 지역단위 또는 마을단위로 자율적으로 행사를 하도록 권장하게 되면 어느 부락에서는 문화행사로 출다리기를 할 것이고, 어느 지역에서는 무슨 잔치같은 날로 할 수 있으므로 그 내용은 다양하게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농민의 숫자는 줄어들고 부녀자화되고 노령화되었지만 그래도 농어민후계자 조직이 어느 정도 뿌리를 내려가고 있으며, 그 중에는 많은 분들이 농촌을 아끼고 애향하는 분들이 아직 남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분들에 의해서 농어민의 날은 자율적으로 커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정신적인 안정과 예산적인 뒷받침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는 무엇보다도 정부의 관심과 또 국회차원에서의 배려가 이 날 행사지원을 위해 꼭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 이 날의 명칭관계에서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정선생님은 어민의 날을 따로 정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히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주장하겠지요. 그렇다면 또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축산인의 날을 주장 못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축산인들도 가을이면 가축품평회를 한다든가 해서 전문업종별로의 나름대로 축제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업종별로 어업의 날 또는 축산인의 날까지 세분화하는 것을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명칭만이라도 한 글자를 더 넣어서 농축어민의 날로 이름지어서 축산인도 대락해서 100만인이라고 하니까 이름만이라도 그렇게 넣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

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적어도 농촌을 아끼시고 제일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 모임에 의미를 주고 싶으며, 어떻게 하면 농민들의 자존심을 살리고 국가에 이 바지 했다는 사명의식을 다시 찾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 땅을 불잡고 열심히 가꾸어 일하면 내 가계가 풍족스럽고 우리 집안이 다른 계층에 종사하는 국민들과 똑같은 생활을 누릴 수 있다는 자긍심과 의욕을 불어넣을 수 있겠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의식과 국민인식의 일대전환이 이번 농어민의 날을 제정함으로써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끝으로 제 소견을 마치겠습니다.

박용열(경기 강화수협조합장) : 우선 정실장님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와서 보니까 농어민의 날 제정 공청회라고 했는데 의의에서도 '어' 자를 빼지 않고 넣어주셨으면 고맙겠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실장님은 풍어제를 가을에도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어업계통의 풍어제는 우선 무사고를 빌면서 풍어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박의원님께서는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흙에서 나서 흙에서 자라고 흙으로 돌아가니까 흙토자가 세번되는 11월 11일 11시로 정하자고 말씀을 하신 것을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보다는 우리가 시작을 중시해야 하며 봄에 농사를 짓기전에 우선 농어민들이 한데 모여서 토론도 하고 농기계 경진대회도 하고 했을 때는 시작이 좋으므로 시작이 반이라고 그 해 농사는 풍년을 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 생일이 음력 10월 16일입니다. 그 때쯤 제가 생일잔치를 하면 집안이 바빠가지고 못오는 이가 많습니다. 이 때는 가을 또 추수시기라서 하루가 늦으면 열흘간다고 그립니다. 앞에서 박의원님께서는 아무리 바쁘다고 해도 하루 이틀 시간을 못 내겠느냐고 하셨는데 현실과는 맞지않는 얘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민의 날을 별도로 정하지 않을 경우 농어민의 날은 봄으로 정해야 하며, 그래야만 토론회나 각종 행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수산업협동조합장이지만 농업도 겸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민의 날을 하나로 모아서 봄에 농어민의

날을 제정하는 것에 찬성합니다. 또한 이런 날을 농민을 위해 만들어 주실 경우 우리 조합에서 예산을 마련하는 것 보다는 국회에서 농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발전되었고 우리 나라가 외국에 지원도 해주고 있는 정도이니 이왕이면 좀 푸짐하게 정부차원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어민들의 사기도 돋우워 주면서 농민에게도 금년에 중산왕이 되고 또 중산도 해서 홀륭하게 농사짓도록 하라고 격려해 주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저는 그 날짜를 봄으로 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용섭(충남 직산농협조합장) : 충남 청원 직산단위조합장 이용섭입니다. 우선 허원장님께서 이 자리를 베풀어 주셨고 또 제가 존경하는 양당 국회의원님들이 농촌에서 자라서 한 맷한 것을 풀어보실려고 애쓰셔가면서 많은 곤욕을 치르고 계신 것, 개인적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여기에 모이신 여러분들 중에 누구도 다른 생각을 가진 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좀전에 말씀이 있었던 것과 같이 피폐일로에 있는 아니면 도산위기에 있는 우리 농촌은 고도성장에 의해서 희생된 하나의 제물이며, 이 농촌문제가 심각합니다. 대통령으로부터 정치하는 국회의원까지, 그리고 여기 모이신 농민대표들도 농촌문제에 대해 똑같은 열의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우선 농민의 날을 정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할 이유도 찬성할 이유도 없으며, 만시지탄하고 있지만 지금에 와서 이 날을 제정하자는 얘기가 나온 것이 이제 위기에서 농민에게 무언가를 한번 격려해 주겠다는 발상이 아니겠는가 하고 생각합니다.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는 몰라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선 농어민의 날 제정을 찬성합니다. 다만 농어민의 날 제정에 대해 찬성을 하면서도 몇 가지 말씀을드리고자 하는 것은 농어민의 날을 정해만 놓고 행사 후속조치가 얼마나 잘 될 수 있을까 걱정이며, 정부나 국회의원들이나 경제기획원에서 예산적 뒷받침이 잘 되어서 진짜 농민들이 바라는 만큼 흡족하게 그날의 의미를 살릴 수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구정서부터 단오제다 추석이다 품평회다 4H 경진대회 기타 등등도 농민과 더불어서 하는 행사

입니다. 특히, 두 국회의원님이 계시다 한 분은 가셨지만, 국회의원을 한번 하려면은 백번을 행사에 참여하지 않고 격려해 주지 않으면은 표를 못얻을 정도로 행사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와 계신 여러분들이 행사하면은 고을단위 유지 아니면 사회활동을 하는 분들이기에 소득이 50만원이면 100만원이 나간다고 가정해서 얘기할 만큼 지금 농촌문제는 여러 가지 갈등 속에서 있습니다. 유지노릇 하려면 모든 행사에 참여해야 하고 조금 먹고 살면서 참여를 하지 않으면 비판당하는 또 행사가 우선 촍점이 되는 것은 국회의원이나 앞으로 지방화, 자유화 기타 등등이 된다고 했을 때에 여기에 형식적으로 마음이 없이 그냥 와서 돈만 내고 참석하고 해야 하는 게 지금 농촌의 행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극단적인 것인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해야 좋을지 안해야 좋을지는 여러분 의사에 따르지만 이런 걸 가지고 나와서 제가 몇 가지 제안을 할려고 합니다. 다만 농민의 날이 제정된다고 그러면 농민들이 어떻게 긍지를 가지고 이 땅에서 존속을 하면서 살 수 있겠느냐 언론인도 말씀을 드렸지만 19%보다도 밀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 총생산에 비교할 때에 10%라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10%도 안될 것 같습니다. 참여도도 미국의 농민이 2%니 3%니 하지만 농촌도 어떻게 보면 전답이 상업 농으로는 도식할 수 없습니다. 왜냐 그 광활한 면적에다가 뒷바라지 영 농자금을 넣지 않고도 자연생으로 생기는 것들이 많은 것이 외국의 농산 물의 예인데 한국은 좁은 데다가 생산성이 맞지 않고 하다보니까 투자대 비용으로 봐서 여기서 소득이 나서 농민들이 잘 산다는 것은 길이 틀렸습니다. 진짜로 농촌을 아끼고 농촌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한다면 농업을 국가기간산업으로서 혁명적으로 다룰 수 있는 방법이 없이는 안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정부나 대통령께서 다루지 않는 한 아무리 토론해 보아도 탁상공론으로 그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 이유는 좀전에 국회의원님께서 농촌을 위한 심각한 얘기로서 저희 가슴에 와 닿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국회의원이시고 국정을 다루는 분인데도 현재의 농정을 토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박의원께서는 농촌에 있을 때는 농촌운동을 했고, 4~5년 전부터 그 지역 농촌을 위해서 농

민들에게 어깨를 두들겨 주면서 선봉에 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이 농민의 대변인이 되어서 지금 농수산부 분과위원을 맡아 있으면서도 현재의 농정을 이렇게 토론하고 있습니다. 농업문제의 논의가 안된 것들이 너무나 많고 논의할 수 없는 것들도 너무나 많아서 이제는 위기감까지 들게됩니다. 그러니 우리 같은 조합장이나 농민대표들 몇 분이 여기 와서 그 문제에 대해 악을 쓴다고 해서 해결될 것이냐 하는 생각을 할 때 저는 사실 회의를 느낌니다. 농업을 국가기간산업으로 보지 않는 한 정치하는 분들이나 농정을 다루는 공직자들이 애쓰는 만큼 얻어지는 것 이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경제기획원에서 예산이 없다고 잘라내어 버리고 국민생산비중으로 볼 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경시해 버리면 그만이 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농정공직자들이 농업생산비중은 10% 정도밖에 안되지만 인구는 17% 정도 되므로 소득분배와 산업적 균형을 내세워 국고를 균분해야 한다고 집요하게 내세워 경제기획원 예산을 따내야 합니다. 기획원에서 예산이 세워져 있어야 농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데 다 짤라버려서 모든 것이 탁상공론으로만 되어버린 것들이 많았고, 그런 정책들이 지금까지의 많은 결과였습니다. 요즈음 농어민 부채탕감 특별조치 가 나왔고 그 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안주는 것 보다는 주는 것이 낫겠지만 한편에서는 고맙다는 말 보다는 오히려 불평이 더 많아지는 것이 대부분 농민들의 경향입니다. 왜냐하면 성실하게 일을 해서 빚 안지고 잘 살아 보려는 사람은 혜택이 없고 성실치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은행에서, 농협에서 돈 얻어다가 쓰고 안갚은 사람들만 무이자로 기백만원씩 탕감을 받게 되었으니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지원이 공평하게 이루어지려면 그 돈을 가지고 비료값을 보조하던지, 영농자재를 몽땅 사주어 버린다든지, 자재원가를 낮출 수 있게 하든지 지금 부채요 인중 제일 큰 것이 농기계부채이니까 농기계구입비 지원을 과감하게 해 주어야 좋을 것이라고 봅니다. 농기계구입비는 욕심 같아서는 20~30% 까지라도 보조해서 (지금 1차는 하고 있습니다만) 부담을 경감시켜 주신다면 제일 좋겠지요. 이런 문제는 농어민의 날만 정해놓고 농민이 빚지고 끊어 사기가 없을 때는 무슨 의의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월급장이라는 것 보다는 고향인 농촌에서 봉사를 하는 것으로 20년 동안을 보냈으며 군대 3년외에는 모두 고향에서만 57년을 지낸 사람이며 앞으로도 고향을 떠나지 않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 경우는 조합장이라도 하니까 3~4년 후에 퇴직보류금 300백만원이라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농민들은 20대부터 농촌을 지키고 있는다고 해서 어떤 보장제도도 없고 다만 돈 천만원 영농자금을 5% 내지 무이자로 주는 것 뿐입니다. 그것으로 이 사람들이 농촌에 안주하고 정착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까 어떤 분이 후계자들이 정착이 되고 있다고 했지만 상당히 어려운 것이 그것입니다. 후계자들이 농촌에 정착할 마음을 불러일으키려면 연금제도를 수립해서 농촌에서도 25~30년 농사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 농민과 공직자들이 58세가 넘으면 연금을 받든가 퇴직금을 받는 식으로 연금제도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산물 가격을 보면 몇년전에 고추파동 때문에 정부에서 수백억의 적자를 보아가며 고추 한 품목을 가지고 법석을 켰지만 이제는 과감하게 하한선 보장가격제도를 만들어 농민에게도 희망을 주고 살 수 있게 만들어 준 후에 농어민의 날도 정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이런 것들이 조금씩이라도 이루어져야 하는데 정부는 돈이 없어 못 한다는 얘깁니다. 농촌문제를 근본적인 것보다는 숫자개념으로만 많이 도와줘서 지금까지도 농촌은 피폐일로에 있으며, 위기에 와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농업이 타산이 안맞는다고 해서 버린다면은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1980년대에 백수현상의 냉해피해가 났을 때에 60억불이나 들여서 쌀을 수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쌀 들여온 것으로 인해서 쌀값 인상은 10년 동안 Zero Point가 있었고 1~2 Point 올려줘 가면서 10년을 끌고 나왔으며 지금 쌀이 남는 것도 그 때 너무 많이 들여와서 그것이 1990년대까지 영향이 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난 해에는 풍년이 들다보니까 풍년기근이라는 말이 나올만큼 이제는 풍년이 들어도 걱정, 흉년이 들어도 걱정인 농촌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농민들에게 농민의 날을 제정하는 데 찬성을 하면서도 농민의 날이 제정되기 이전에 앞에서 이야기 한 문제들을 먼저 풀어주어 희망을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금제도 같은 것을 국회에서 법으로 제정한다든가 농산물 중에도 중요한 것은 최소한도 하한선 보장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해놓고 나서 농민의 날을 제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농촌은 폐폐되었고 파산지경입니다. 또 생산비중이 국민총생산의 10%라는 것도 알고 있고 이러한 농업이 이제는 심을 작목조차 없게 되었다는 것도 매스컴이나 소문들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농사꾼들은 별다른 방법이 없어서, 하늘을 쳐다보고 그냥 있을 수는 없어서 농사를 짓는다는 심정에 까지 와 있다라는 사실을 좀더 유념을 해주셔서 국가차원에서 기간산업으로 밀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금전에는 농협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 조합장으로서 조금 해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다보니 농촌에서 조합장으로만 20평생을 지냈습니다.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면 저도 농협운동을 했고 농협을 경영도 했으며, 한때는 또 잘한다고 해서 새마을훈장 협동장도 1980년 대에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제까지 25년 동안의 농촌운동을 회고해 볼 때 극렬적인 농민이나 재야농민분들이 얘기하는 농업의 비판도 달게 받아야 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농촌에서 나와 같이 평생 성의껏 리더를 했다고 했을 때에는 농민들이 부강하고 잘 되었어야 하며 소득원이 좋아서 작물을 심은 사람들이 희망을 가져야 될텐데 그러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지요. 빛 투성이가 됐다 이겁니다. 어떤 측면으로 놓고 보면은 농민들에게 빛만 지우고 또 소득사업을 한다고 장려를 해서 거기에서 오는 실패나 좌절감은 책임을 지지 못하면서 20여년 동안을 농촌운동을 해왔다는 점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 가슴 아프고 자결을 하고 싶으리만치 반성을 하면서도 조그마한 변이 있다면 그래도 농협, 수협, 축협이 자생적으로 아니면 하향적으로 20여년전에 생겨서 이 농촌을 건설했기 때문에 이만한 농촌이라도 있지 않겠느냐고 변명을 좀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농협이 무엇하고 있느냐고 하지만은 수협이나 축협, 농협 말단에서 지금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로서는 많은 부담을 느껴가면서 또 정부의 시녀라는 얘기를 들어가면서도 그 사업경영성과를 직원들이

먹는 게 아니고 실수요자인 농민을 위해 강원도나 충청도, 제주도까지 겹 한개, 라면 한 개까지 모든 생필품을 실수요자 가격으로 공급하는 역할을 농수축협에서는 해왔습니다. 또 연리 4부, 5부짜리 장리를 제도권으로 묶어서 그 분들에게 펴주면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형편이 좀 나아졌고 성장이 되었으며 조합원들이 농협, 수협, 축협으로 뭉쳐야 된다는 인식속에서 계속 성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서 남는 것으로 지도 사업비, 복지 사업비 등등으로 쓰고 있으며, 각 단위조합 사무소에서 농어민 자녀들에게 장학금 주는 것도 수백명에서 수십명을 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 농협 중앙회에서는 공제 장학금으로 300억을 매년 내놓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지방행사에 있어서 후계자 행사나 군민의 행사와 마을단위의 농어민 행사에 거의 수십%의 비용을 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규탄을 받는 것이 농업공직자입니다. 결과적으로 농민이 못 살기에 농업에 종사하고 농민을 대변해 주는 사람도 이렇게 얹어맞고 일한 것이 표도 안나는 것 아닙니까? 좀전에 박의원님께서도 대단히 서운해 하시는데 바로 이렇게 농촌이 피폐되어 있기 때문에 극단적인 얘기를 하는 것으로 감수를 해주셔야 합니다. 박의원님이나 이의원님이나 저나 또 여기와서 앉아 계신분들이 모두 농업과 함께 도탄에 빠져 있으니까 지금 이런 실정에까지 와 있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를 고려하여 농업을 국가의 기간산업차원에서 다뤄가지고 과감히 밀어줄 때 앞으로 700백만 농민이 아니라 그 10%인 400만이 된다고 했을 때에도 농촌을 지키고 이 땅을 지키는데 선구자가 되고 애국자가 된다는 긍지를 가진 농민들이 남아 있어야만 농민의 날이 의의가 있고 뜻이 있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할애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농어민의 날을 가을로 하자는 얘기가 나오는데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동감입니다. 옛날에는 미풍양속으로 가을의 축제가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농촌의 가을은 초상집 가을이에요. 풍년이 들어도 풍년기근이요, 흉년은 흉년기근입니다. 제값을 누가 주는 사람이 있어야지요. 이제 농민들은 모였다하면 터지는 것이며, 어떻게 터질련지는 몰라요. 누가 물리적으로 치료를 하고 강권으로

의제하기 이전에는 농민모임은 동학난처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는 현재의 농촌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농어민의 날 제정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좀전에 제가 전제를 한 대로 봄에 농사를 시작할 때에는 농사를 지으면 얼마쯤 보장이 되고 20년 또는 25년 농사만 계속 열심히 하면 공무원과 같이 노후보장도 되고 연금도 주며 농업으로도 희망이 있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농어민의 날이 곧 농민에게 희망을 가져다 주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아무 보장도 없이, 아무 희망도 없이 농민의 날만 제정을 해 놓으면 별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김성배(KBS 보도제작국 부국장) : 미국과 소련이 전쟁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미국이 확실히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식량전쟁입니다. 바로 식량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얘깁니다. 이같이 농업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산업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얘기가 되는데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산업화 사회라 해서 농업이 뒤쳐지고 농산물 수입개방이 되어 농민들의 의욕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농업의 중요성 인식을 재고시키고 농어촌에 활력소를 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해서 농어민의 날을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바입니다. 지금 여러 연사라든지, 토론회에 나오신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농어민의 날을 봄에 할 것이냐, 가을에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쟁점중에 하나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 나라는 두 가지의 큰 농사행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농사준비를 하면서 했었던 권농행사가 있었고, 가을에는 수확을 앞에다 놓고 하는 추석이 있었습니다. 옛날부터 있었던 일로 봐서 그 때에도 춘추로 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지금도 그 행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농어민의 날을 언제로 하느냐 하는 것은 역시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농어민의 날은 지금까지 여러 연사들 말씀이라든가 토론풍에 말씀을 보면 축제라는 데에 상당히 많은 비중을 두었습니다. 축제라는 것은 결실과 성과를 앞에 놓고 벌였을 때 그 축제의 도는 더 높아간다고 봤을 때 가을이 어떨까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가을이라 할 때 양력 10월과 11월 이렇게 둘로 나뉘어지는데 박경수의원님은 토자가

3개 들어가는 11월 11일 11시가 좋다는 말씀까지 있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연구를 하셨고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민속도 생각을 하신 결과로 알고 있습니다. 10월의 경우에는 많은 행사가 겹쳐지는 달이고 그러니 10월은 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이 좀 불확실하지만 1985년인가, 1984년인가 KBS에서 풍년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풍년제를 10월 하순에 했었습니다. 10월 하순에 하면서 풍년제에서는 품평회도 했고, 농악놀이도 했고, 향토풍물전도 했고 참 우리 프로그램으로서는 다양하게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일 신경을 많이 썼고, 제일 애를 먹었던 것이 날씨였습니다. 10월 하순에 하면서도 고생을 했습니다. 그 때는 한 일주일간을 했는데, 그 성과가 좋다고 해서 몇일 더 늘렸습니다. 10일간을 더 늘렸고, 거기서도 성과가 좋다고 해서 더 늘려달라고 했는데 11월 달로 넘어가다보니까 도저히 일기불순 때문에 우리가 그 행사를 이끌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열흘 정도로 끝낸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 오기전에 몇 가지 통계를 잡아 보았습니다. 아시다시피 88서울올림픽을 개최하는 날짜가지고도 국가적으로 상당히 많은 고려들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림픽 개최날짜는 개최국이 결정하면 됩니다. 그때 날씨가 제일 먼저 거론이 되었습니다. 서울의 경우에 있어서 11월 11일을 평균기온으로 조사를 해 보았더니 평균기온이 섭씨  $6.9^{\circ}\text{C}$ 입니다. 최고는  $11.8^{\circ}\text{C}$ 이고, 최저는  $2.3^{\circ}\text{C}$ 입니다. 이것은 몇 년간의 통계를 종합해서 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같이 말씀을 드리면 서리가 처음 오는 시기가 10월 11일 날 가장 빠르게 오면 10월 3일 날 옵니다. 그리고 얼음은 보통 10월 20일(평균)에 얼고 가장 빨리 얼면 10월 8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첫 눈은 대개 11월 19일 쯤이면 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 빠르면 10월 25일 날 온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야외활동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온도는  $15 \sim 18^{\circ}\text{C}$ 입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농어민의 날 행사가 야외행사와 실내행사가 있습니다만, 야외행사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입니다. 이럴 때 야외기온을 많이 참작하면 어떨까해서 통계를 잡아본 것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11월 11일은 최고온도도  $11.8^{\circ}\text{C}$ 밖에

안되니까 야외활동을 하기에는 상당히 기온에 있어서 미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0월달을 한번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일단 10월 20일을 잡아 보았습니다. 최저가 9.4℃이고 최고가 19.5℃입니다. 평균 13.9℃입니다. 평균으로 보면 야외에 인간이 활동할 수 있는 기온으로 봐서는 좀 미진하지만 그래도 최고가 19.5℃까지 가는 경우가 있다고 본다면 역시 10월 20일이 어떨까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을 참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며, 물론 10월에는 많은 행사가 겹쳐지기도 하고, 또 어느 때는 추석이 10월에 들어서 농어민의 날하고 겹쳐지는 경우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발표자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축제를 했을 때는 날씨를 가장 중요하게 잡아야 한다고 봤을 때 이러한 점을 참작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몇몇 토론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추석은 국민 각자가 쌀을 빚어서 떡을 빚고, 술도 만들어서 국민각자가 자기부담을 해서 지내는 명절입니다. 그런데 농어민의 날을 만든다고 한다면 다시 또 국민 각자에게 부담을 주게 되므로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지원해 주면 그런대로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권기술(전국농업기술자협회 부이사장) : 저는 농업기술자협회의 권기술입니다. 오늘 농어민의 날 제정에 관한 공청회를 주최해주신 농촌경제연구원에 대해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농어민의 날 제정여부에 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까지 농어민의 날이 없었다 하는 것은 우리 농민들이 또는 어민들이 얼마나 무기력했던가 하는 것을 스스로 반성해야 할 계기가 되었다 생각합니다. 우리 생산기술도 상당수준에 달했고, 경영성과도 상당수준에 달했지만 우리 정책농사는 사실 잘못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정책농사도 제대로 지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먼저 해야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그렇게 무기력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농어민의 날이 없었다, 이렇게만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를 잘 주장할 줄 모르는 어린이도 어린이 날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린이들이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나 여러 가지로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어린이날을 정책적으로 제정해 준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 농업이 정책적으로 중요성을 인정받지 못했거나, 아니면 농업이 정책의 관심밖에 있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우리 스스로도 반성을 좀 해야 된다 생각을 하면서 늦었지만 농민의 날, 어민의 날 제정 공청회가 이루어졌다는 것에 저는 고맙고 뜻 깊게 생각을 하면서 저희 협회의 입장에서는 전폭적으로 농어민의 날 제정을 지지하는 바입니다.

그 다음 지지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제정되기를 강력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둘째 농어민의 날 제정의 의미와 행사에 대해서는 당국이 우리 농어민에 대하여 선심이나 쓰게 되는, 농정빈곤을 호도하고 달래기 위한 하루만의 행사가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루만의 행사가 아닌 국가적 차원의 기념일이 되어 국민생명 에너지 공급자로서 또 기본적 안보산업으로서 경제적, 사회적, 국민 보건적 차원에서의 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재인식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는 행사여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농어민의 날이 제정되어서 어떤 행사를 한다면 당국의 농업발전 의지를 확인하는 행사가 되어야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농어민 스스로도 생산과 경영과 정책을 분석하는 행사가 되어야 하고, 또 비판과 개선을 통해서 발전적인 설계를 꾸미는 행사가 되어야 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 일반국민들이 농촌을 잊어버린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국민들이 농업에 대해서 별로 애정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농업과 농어민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행사이어야 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농민의 날과 어민의 날을 구분해서 제정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 문제만은 저의 생각으로는 어민대표의 뜻을 존중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날짜를 11월 11일로 할 때 토자 2개가 된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농업기술자협회 전국대회를 11월 11일로 정해서 했을 때에 이미 나왔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농민의 날을 11월 11일로 정하는 것에 저희들은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민의 날 행

사라든지 준비라든지 그런 문제에 대한 주관은 어느 부서에서 하면 좋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조금은 자율성이 있고 자주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농민단체가 모든 준비나 추진의 주관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첨언을 드린다면 농민현장을 제정해서 범국민적으로 농어업에 관한 국민적인 관심을 상기 시킬 수 있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며, 우리 농민 스스로도 농업에 종사하는 것에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고, 또 농업에 종사한다는 것이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도 큰 사명감을 불러 일으키게 할 수 있는 내용의 농민현장을 동시에 제정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간단하나마 마치겠습니다.

동열모(전국농촌지도자중앙회 사무총장) :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선 오늘 이러한 공청회가 마련되었다는 것을 대단히 뜻있게 생각하며, 이 자리에 마련해 주신 농촌경제연구원 허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까지 참 좋은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다시 중복된 말씀은 피하기 위해 다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토론을 보게 되면 우리 농촌에 대한 시각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가 우선 정립되어야 농어민의 날 제정에 있어서도 그 배경이든가 행사의 진행이든가 어떤 측면에서 담당해야 된다든가 하는 문제가 줄기를 찾아서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농업부문은 과거의 우리 산업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피해를 입었고 희생을 당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와서는 저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해 줘야겠다는 식의 발상으로 과거에 공헌을 했으니까 거기에 은혜를 보답하는 뜻에서 이 사람들을 봐줘야 한다는 시혜적인 시각에서 보고 있는 데에 의견을 달리합니다. 우리 농업에 대해서 동정이나 시혜를 준다는 것은 오히려 '농'을 덜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농'이라는 것은 다만 저 사람들이 약자니까 도와준다는 것이 아니라 산업화되면 될수록 '농'에 대한 역할이 무엇이냐, 그리고 얼마나 중요한가를 집고 넘어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도시인이나 다른 2차·3차산업에서 볼 때에 이 농업을 불쌍하다는 생각이나 약자를 살려준다는 동정이

아니고 공존공생과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시켜야 합니다. 공업측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푸르름을 가꿔야 하기 때문입니다. 공해를 어떻게 하면, 정신적·물리적 공해를 중화시켜야 되느냐,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하겠다는 시각에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어민의 날에는 이러한 시혜적인 것이 아니고 농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솔직히 농민들은 피해의식, 소외감에 젖어있는 것 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농어민의 날에는 이러한 종래와 같은 형식적인, 몇 시간에 빼워버리는 식이 아니고 희망과 결속속에 뭔가 결의를 다지는 행사가 되어야겠습니다. 농민위주 보다는 도시민에게 홍보매체를 통해서 '농'이 과연 어떻게 우리 산업사회를 지탱하느냐, 다시 말해서 산업사회에서 파생된 온갖 정신적·물리적인 공해를 어떻게 여과시켜 우리의 삶을 유지시켜 주는가 하는 것을 농어민의 날이 나마 이해시킴으로써 '농'에 대한 애정과 마음의 고향을 다시 생각케 하는 데 농어민의 날의 뜻을 두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산업적인 측면에서 비교우위론을 얘기하는 것은 매우 편견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라든가 국민총생산에서의 비율이라든가 하는 것은 극히 일방적·미시적인 계산에 불과하며, 우리는 보다 거시적인 측면, 자연보호하는 측면에서 '농'을 봐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국 농업기술자협회 권이사장의 말씀에 대부분 동감합니다만 어민의 날과 농민의 날은 자연스럽게 각각의 여건을 고려해서 할 것이지 굳이 무리하게 합친다면 무리라고 생각됩니다. 또 11월 11일에 대해서는 아까 박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한 가지 박의원님의 말씀에 덧붙인다면 우리 원성군에서는 1964년부터 농민의 날을 11월 11일 11시에 해오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11일이 26회였습니다. 이것이 시효가 되어서 전국적으로 군단위 혹은 읍면단위 약 60 군데 서 이미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에 농민의 날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고 벌써 20년전에 11월 11일 11시에 원주시에서 아주 대대적으로 치뤄지고 있는 자체행사 – 이것은 '관'이 주도한 어떤 인위적인 조직이 아니고 자연발생적으로 나왔다 – 라는 점을 말씀드릴

니다.

다음에 앞에서 여러분이 말씀하셨지만 중앙단위로 올라 올수록 자칫하면 형식에 지나지 않고 아무뜻도 없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부락단위 혹은 읍면단위, 아무리 올라와도 군단위 정도의 행사로 하고 그 이상단위에서는 약간의 기념행사 정도로 함으로써 중점은 저 밑 바닥에 두어야 그야말로 대중, 농민 전체의 참여에 의해서 뜻이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기는 아까 김성배국장께서 말씀하신대로 기온이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11월 11일이 다소 옥외행사로서는 무리가 있을지 모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실내도 될 수 있고, 옥외도 될 수 있으므로 획일적으로 행사 프로그램을 만들게 아니라 지역에 따라 지역 행사, 최후행사, 품평회 등과 같이 지역행사로 농민전체의 참여를 유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때에 이미 전국 60여군데에서 연례행사로 꾸준하게 실천해오고 있으므로 무리하게 달리하기 보다는 기온에 다소 무리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계속 유지해 나갔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경해(전국농어민후계자협의회장) : 소개받은 이경해입니다. 이런 자리가 마련되기까지 여러분들의 많은 노력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박경수 의원님을 비롯하여 농림수산부 여러분과 농촌경제연구원 허신행 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농어민의 날은 있어야 한다고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까지 왜 있어야 되느냐 또 어떠한 시기에 해야 되느냐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제 견해도 농어민의 날 행사는 축제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축제를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느냐 하는 점을 생각할 때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문화적인 행사도 있어야 할 것이고, 또 체육적인 국민보건을 위한 행사도 있어야 하고 전통문화적인 행사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농어민의 어려움을 전할 수 있는 행사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산자입니다. 이렇게 볼 때 생산자가 무얼 놓고 축제를 해야 합니까? 봄에 해도 좋습니다. 앞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봄에 해도 좋겠지만 우리 농사꾼들은 풍성한 결과를 놓고 얘기를 해야 또 앞에서 현재 우리의 농업현상이 어렵다는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이 어려움을 우리 농민 스스로 지금 현재 풀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어려운 농업현상을 우리 농민 스스로만으로 풀 때는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총체적인 차원에서 이 농업문제는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할 때 이 축제가 풍성한 농산물을 가지고 도시의 소비자들과 농촌의 생산자가 서로 어우러져서 우리 국민의 총화를 끌어낼 수 있는 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도시에 있는 분들이 결국에 보면 농촌에서 떠났던 분들입니다. 이 분들이 지금 농촌을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농촌을 잊어버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잊어버린 장에 이 분들을 끌어내어 옛날의 향수를 불러 일으키고 우리 농업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기를 본다면 10월달입니다. 그 중에서도 진길부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추석 전후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어떤 방법을 거쳐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휴일이 되면 금상첨화로 생각합니다. 추석후가 되면 도시인들이 고향에 내려와 서로 손을 잡고 옛날을 회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추석직후가 좋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에 이러한 행사는 누가 할 것인가인데, 사실 지금까지는 관에서 많은 행사를 주도해왔습니다만 앞으로는 민주화·개방화·저유화 되어가는 이 시점에서 자율적인 차원에서 농민단체들이 이 행사를 맡아서 주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자기 지역에 맞는 향토적인 문화예술제를 뽑아내고 가장 합당한 문제를 찾아내서 축제의 장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일을 스스로 좋아서 할 때에는 신바람이 나서 더욱 더 잘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농민단체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견해입니다. 지금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만 의의와 장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단위, 읍면이나 마을단위로 한다면 너무 사람이 없기 때문에 최소한 군단위 정도의 행사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화(국제농업개발원 원장) : 저는 농어민의 날 제정에 대하여 적극 찬성을 하는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농업문제는 국민 스스로 풀 수 없는 문제입니다. 국가 총체적인 문제이고 도시인, 다시 말씀드리면 소비자의 협조없이는 풀어질 수 없을진대 농민들끼리 모여서 행사를 한다는 것은 더 번거로움만 생길 뿐이라고 저는 단정짓고 싶습니다. 그래서 농어민의 날은 추석이나 구정처럼 국민전체의 고향찾는 그러한 스타일의 날이 되어야지 단순히 농민의 날을 제정해서 가을에 행사를 한다는 것은 추수감사절 등 지금까지 농업행사가 너무 많아서 농업생산에 지장을 주는 형편인데 또 무슨 행사를 한다는 것은 우스운 얘기입니다. 그동안 농산물 품평회 라든가, 농기계 경진대회 등 수많은 행사를 했고, 1970년대 ~ 1980년대 초창기만 하더라도 대통령께서 나오시고 국무총리께서 나오셨습니다만 지금은 장관도 그 자리에 나올까 말까 합니다. 그런데 공휴일로 정하지도 않고 막연하게 농민들끼리만 모인다면 결국 일종의 월기 대회에 불과할 것입니다. 국가적인·전체 국민들의 지지없이는 어렵고 하나님의 형식에 불과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을을 자꾸 추수의 날이라고 강조하시는데 벼농사의 경우에는 가을이 추수날이지만 돼지새끼 놓는 날이 반드시 가을입니까? 자꾸 결과를 놓고 이야기하자고 하는데 오늘날 다변화되어가는 국제화시대에는 계획이 더 중요해서 결과부터 따질 수는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농업 문제는 어떤 면에서 풀고 싶으나 하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고향은 다 농촌일 것입니다. 그러나 10년후에 서울사람들 고향이 어디고 물었을 때 그 도시자체가 어쩌면 고향일런지 모릅니다. 이렇게 되면 추석명절에 고향 찾아갈 사람이 어디 있으며, 지금처럼 고속도로가 메워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간에 농민의 날은 고향찾는 날로 해서 전 국민의 축제속에서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저는 이왕 만들어진다면 당연히 공휴일로 해야 되며, 공휴일이 된다면 농업은 음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음력으로 따져야 된다고 봅니다. 아마 삼월 삼진날을 기준으로 한다면 어업을 하시는 분들 한테도 좋고 양력으로 따지면 식목일도 되고 또 고향찾아가서 성묘

도 하는 시기도 되고 또 그 때쯤이면 농업을 시작하는 농민들이 가장 시름에 차 있을 때입니다. 이러한 때에 도회지에 있는 사람들, 서울에 있는 삼촌 아니면 조카가 시골에 내려와서 아저씨하고 만나서 농번기에 돈이 없다든지 하는 어려움을 들었을 때, 다소의 도회지 돈이 농촌으로 흘러 들어오는 기회도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도로공사와 구정이 양성화된 후에 구정을 통해 고향을 찾아 내려갔던 분들의 승용차 트렁크에 쌀가마가 얼마나 많이 실려오나 하고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과거에 구정을 무시했을 때는 공무원들 같으면 신정 때 거의 직장상사 찾아다니느라 노는 날 고향가기 어려웠는데 구정이 공휴일이 되니까 구정에는 고향찾아가서 트렁크속에 호박말랭이를 비롯해서 고구마 또는 쌀가마 등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 물량이 엄청난 것을 저희들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바로 고향을 사랑하는 정신입니다. 그래서 저는 3월을 기준으로 해서 어민들도 좋고 축산인들도 좋고 한해의 계획을 세우는 시기인 3월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도회지 사람한테 농촌을 알리는 운동이라는 차원에서 농어민의 날 보다는 고향찾는 날 이라고 하든지 고향의 날 이라든지 하는게 더 좋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농어민의 날이 제정이 되었을 때 광부는 광부의 날을 하려고 할 것이고 상인은 상인의 날을 만들려고 할 것이고 나아가서는 도시 사람들은 도시의 날 제정하자고 하는 소리가 굳이 안나온다고도 못할 것입니다. 전체적인 의견이 국가적인, 총체적인 입장에서 풀어나가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한 마디만 강조하겠습니다. 뉴욕의 교민들이 얼마 안됩니다. 뉴욕 전체 시민은 1,000만명이 됩니다만 교민은 불과 35만명이 되는데, 1985년 9월 23일을 '한국의 날'로 정했습니다. 한국의 날을 뉴욕시장이 정해주는 것 만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한국의 날이 정착이 되고 올해는 한국의 날이 언제나고 미국 전체의 시민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느냐 하면 도로를 차단해 준 것입니다. 맨하탄 18가를 차단시켜 버렸습니다. 거기에서 그 날은 한국 사람들이 핑파리도 치고 뉴욕시장이 한복을 입고 춤도 추고 완전히 축제 분위기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도로를 차단시켜 주고

거기에 한국사람이 뛰어노는 광장을 마련해 주다 보니까 이게 올해 불과 6년째입니다만 5년만에 아시아인들의 날로 부각된 것이 바로 도로를 차단해 준 것입니다.

우리 농어민의 날은 여하튼 공휴일로 만들어야 합니다. 도시 사람들이 농사꾼 때문에 내가 쉬는 날이 생겼구나. 뭔가 덤으로 보너스적인 이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끝맺겠습니다.

김일철(서울대 사회과학대학장) : 오늘 이자는 전부 농업과 관련된 분들이 와 계시니까 이런 날을 제정하는 데 대해서 반대하실 분은 아마 한 분도 없을 것 같고, 반대하실 분은 아마 초청도 안했지 않았겠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보아서 이런 것을 하기에 좋은 시기가 아닌가 싶은데 일단은 만들어 두는 것이 여러가지로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와 쟁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준비하신 자료를 본다면 여러 가지 날이 있습니다. 스승의 날, 학생의 날도 있습니다. 이런 날이 있으니까 데모를 잘 안하고 선생들한테 꽂다발이라도 하나씩 주기도 합니다. 어떤 날이 있으면은 이 날은 농민을 생각하고 농업을 생각할 수 있는 날은 분명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나 국회에서나 노력을 하셔 가지고 어떤 날을 하나 만드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거기에 대해서는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농민·농업을 여태까지 너무 많이 회생시켰으니까 농민의 날을 만든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할 사람은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날을 정부에서 제정한 걸 보면 우선 정부주관부처가 있습니다. 직업을 가지고 날을 만든 것이 있고, 산업을 가지고 명칭을 붙인 것도 있고 가지각색입니다. 금방 이병화 선생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직업으로 이름을 붙여야 하느냐 하는 문제는 생각을 좀 해봐야 할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40~50대까지는 농민이 아닐수 있지만 그 세대까지 합한다면 농민이 아닌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부모대 까지만 올라가더라도 다 농민인데, 한 30~40년 지난다고 생각을 해 보면 자기 아버지가 농민이 아닌 사람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 진짜 농업을 잊어버릴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농업이 대단히 중요하고 생활의 일부로 성장을 해 왔으니까 역사적으로 우리가 별 문제는 없습니다만 그 때 가서 농민의 날 하면은 30 ~ 40년 뒤에는 이상한 어감이 들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이 병화 선생님은 고향찾는 날이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때 가서는 고향이 반드시 농촌이 아닐 것입니다. 대부분이 도시에 사는데 도시에 놀러가는 날이 되어버릴 테니까 그것도 문제지요. 우선 농촌숫자도 작아지고 농민숫자도 작아지는데 우리가 지금 30년, 50년 뒤를 생각해 가면서 명칭을 생각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하나 걸립니다. 그래서 농어민이라고 해서 직업 혹은 산업과 관련한 이름을 붙이는 것이 좋은지 혹은 어떤 마을, 농어촌 등의 이름을 붙이는 것이 좋을지 저로서는 반반입니다. 왜냐하면 이것과 관련하여 주관부처가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 현재로 본다면 농림수산부에서 하겠지요. 그런데 농수산부에서 하는 행사가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큰 기대는 안하는데요. 그야말로 농어민이나 산업으로써의 농어업을 중요시한다면, 그리고 여러 선생님들께서 어떤 행사, 어떤 사업을 해야 하는가를 쭉 열거하신 것을 보면 농수산부에만 해당되는게 아니고 정부 각 부처가 다 주관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 기술품종경진대회, 전시회, 농어촌 향토문화 축제, 농어민 훈장제정, 푸르름 가꾸기, 자연보호운동, 농어촌후계자양성사업 등이 언급이 되었는데 제가 더 추가시켜서 할 수 있는 행사로서는 농촌운동과 농민들에 대한 시상을 기술품종경진대회와 관련해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농어촌 발전을 위한 각종 정책, 연구발표, 제언 등을 그 기간에 했으면 좋겠고, 또 농어민의 생활개선에 대한 경진대회라든가 향토식품을 혹은 향토시장사업을 그날 대대적으로 각 도시에서 한다든지 또 농촌과 도시의 자매결연대회를 한다든지 각 농어업 관련 교육기관을 통한 각종 사업같은 것을 한다고 볼 때 농수산부 혼자서 하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더 격상시켜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직접 하시든지 아니면 총리께서 하시든지 차라리 경제기획원에서 하시든지 그런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관련된 사업이 너무 많이

나을 것 같아요. 우리가 다 공감을 합니다만 어떤 날을 정해서 하루 기념식이나 하고 그만둘 것 같으면 아무 소용도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의의를 살릴 수 있느냐, 어떤 목적으로 농어민의 날을 정해야 하느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의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가 언급이 되었습니다. 농업·농민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게 하자, 농어촌 발전의 계기를 삼자, 농어민후계자 양성과 교육을 향한 계기, 국민축제를 하는 계기, 또 농어업 기술개발을 강조하는 어떤 계기로 삼자 혹은 농어민에 대한 사기양양을 하는 계기로 삼자, 향토문화 개발, 도시인의 농민·농업에 대한 인식을 강조하는 날로 삼자, 자연보호운동을 전개하는 날로 잡아보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목적은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날을 개설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어느 부문에 가더라도 다 찬성할 것입니다. 다만 반대할 측이 있다면 여성쪽인데요. 왜냐하면 여성의 날이 없습니다. 여성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단히 중요한데 여성의 날도 없는데 농어민의 날 먼저 만든다고 여성계에서 들고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명칭을 어떻게 하며, 목적을 어떻게 하며, 어떤 사업을 하며, 주관을 어디에서 하는 것이 문제일 것입니다. 주관은 분명히 정부에서 해야 할 사업이 있고, 민간단체, 농어민 단체, 농어업 관련기관 또 연구단체, 교육기관, 연구기관에서 해야 할 일들이 있을텐데 어떻게 이것을 유기적으로 하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될 것인데 초기단계에는 각 단위, 각 수준 별로 대대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어떤 협의체 같은 것을 구성해서 사업을 협조적으로 추진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을 이러한 연구원에서 공청회를 한번 해서 쉽게 되리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언론을 통해 국민들의 여러 가지 여론을 많이 활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어업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는 대단히 높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운동을 해서 정부쪽이나 국회쪽에서 쉽게 이것이 통과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여론조사를 대대적으로 해서 상기시키고 서명, 진정서 등을 각

관련단체에서 내고 공청회 비슷한 모임들을 여러 가지로 한다든지 해서 정부와 국회에서 쉽게 이것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다만 이것을 공휴일로 하느냐, 기념일로 하느냐 혹은 기념주간으로 하느냐 이런 것은 저로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두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공휴일로 해 놓으면 그 덕분에 놀기는 합니다만 대단히 의식화, 형식화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정부부처주관으로 기념행사만 한번 해버리면 되는 그런 식으로 훌려갈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을 길게 본다면 농어촌을 발전시키는 하나의 운동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볼 때 학계 혹은 연구, 교육, 사회운동단체 또 농업관계 기업체가 참가해서 대대적인 행사를 어떤 기관을 통해서 한다고 할 때에는 이것은 일종의 사회운동인데, 그러한 각도에서 볼 때는 어떤 주간 같은 것을 설정해서 민간 단체가 '주'가 되고 정부에서는 후원을 하거나 정부에서 같이 주관을 해도 좋은 방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공휴일로 지정을 하면서 이 주간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2가지인데, 우리가 지금 어떤 날을 찾아서 기념을 하는 것이 다 농촌을 걱정하는 것인데 제일 큰 문제는 사람문제입니다. 아까도 여러분이 강조를 하셨습니다만 점점 사람이 빠져나가서 이제 20~30년 후면 전부 노인들 - 여기 농민대표로 오신 분만 해도 전부 40~50대 인데 - 이 되실텐데 지금 20대 농어민 후계자들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대가 곧 끊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농촌을 생각할 사람도 없고 농촌·농민에 대해 전부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럴수록 정부는 중요하게 다뤄 짚은 사람들을 어떻게 농촌에다가 계속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농촌에서 나간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 같으니까 농업을 생전 지어보지 못한 도시 청소년들을 어떻게 하면 농촌에 보낼 수 있는 방법 - 수혈이라는 개념을 쓰고 있음 - 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촌자체에서 농민들을 불들어 두겠다는 것은 더 이상 어렵다고 보고 밖에서 데리고 와야겠다는 각도에서 청소년들에 대해 농촌에 들어가서 살고 싶다 하는 의욕을 넣어주는 대대적인 사업, 교육을 진행시키는 것을 보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농업,

임업, 수산계통의 학교도 중점적으로 지원을 해야겠지만 일반 인문계통, 도시에 있는 학교들에 대해서도 농촌·농민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여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즉, 농촌에서도 유인책이라고 할까요 젊은 사람들에게 농촌이 매력있는 것으로 만들어지는 방법을 강구해 가는 입장에서 정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이것을 농수산부에서는 산업생산만 강조하십니다만 이런 것도 농수산부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방송국 문제입니다. 방송국에서 오셨습니다만 우리가 산업으로서의 농업 혹은 직업으로서의 농민·어민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방송국이 하나 필요하다는 얘기는 제가 오래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른 상업채널이 하나 생긴다면 온통 전부 도시인을 위한 프로그램이 됩니다. 농민을 위한 프로그램은 지금 제3방송국에서 잠시 나가는 것 밖에 없습니다. 농촌을 드라마 테마로 하는 프로그램은 몇 개 나가지요. 그게 전부 몇십년전의 아득한 농촌얘기를 재미있게 꾸며나가는 드라마지 농촌을 키워나간다는 필요에서 나오는 드라마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볼 때는 지금 농업관계·수산업관계에 기업도 많고 단체도 많은데 이런 곳에서 투자를 조금하면 방송국같은 것을 하나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장기적으로 본다면 농촌쪽에서 방송채널이라도 하나 가져야 우리가 빨 불일 곳을 찾지요. 매일 돌아다니면서 소리만 질러봐야 농민문제·농업문제해결에는 상당히 역부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조일호(농림수산부 농업구조정책국장) : 저를 토론자 자리까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선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좋은 의견중 최대한 공약수를 구해 가지고 우리 농어민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농어민의 날을 제정하고 그것이 실효성있게 발전하도록 관리해야 되는 입장에 제가 있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기 보다는 우선 여러분께서 좋은 의견 많이 개진해 주셔서 그것을 저희가 앞으로 일을 하는데 큰 참고가 되겠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다. 두번째로는 오늘날 농어촌의 어려움에 대해서 여러가지 말씀이 많이 계셨는데 제가 볼 때는 현재 우리 농어촌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 만은 사실입니다만 우리가 지난 30년 전체나라가 발전한 과정이라든가, 또 그 가운데에서 우리 농어촌이 발전하는 과정을 회고해 본다면 현재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서로가 정확하게 인식하고 거기에 정부는 정부대로, 농어민은 농어민대로,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각자가 같이 노력을 해서 나가면 다소 시간이 걸리지마는 우리가 이런 문제를 전혀 풀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농어민의 날 이라든가 이것을 통한 여러 가지 행사라는 가 이런 것도 그러한 전반적인 노력과 맥을 같이해 가면서 나가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여러분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희로서도 농어민의 날 행사는 일선에서 직접 농어민 여러분과 단체에서 자율적으로 모든 일을 하고 정부는 뒤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을 챙기려는 기본입장에 있는 것만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성규환(경북 상주단위조합장) : 경북 상주 조합장입니다. 조합장이기 이전에 모양도 이렇듯이 실제 농사를 지으면서 농협운동을 근 12년간 넘게 계속해왔습니다. 먼저 농어민의 날 제정에 관해서 몇 가지 느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일보 논설위원께서 농민단체에서 어조가 높다 하는데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농촌에서 흔히 옛날 어른들의 말씀중에 무는 개를 돌아보라는 말이 있는데 이런 측면의 불신풍조 속에서 소리가 좀 높지않겠는가, 저 개인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박경수의원을 처음 뵙습니다만 성함은 높이 알고 있습니다. 농민이기 때문에 어느 자리에 가서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성격인데 대한민국 국회의원님들이 직능대표다, 지역구대표다 하여 많습니다만 사실 농사를 지어가면서 농민의 대표로 대변할 수 있는 지역대표 국회의원은 몇 분 안됩니다. 그래서 조그만 농업을 경영하면서 대변하는 길은 상당히 힘듭니다. 한 가지 예 를 들면 지난번 농협법 개정할 때 공청회도 참석했고

국회도 몇번 들어가서 농민의 심정을 얘기했습니다만 개인 내 생각은 맞다 그러나 당론에 따라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렵다 말씀들 하는데 굉장히 섭섭함을 느낍니다. 역시 박의원 계십니다만 농민을 대변해도 당론이나 전체흐름에서 역부족인 면이 있는 줄로 압니다. 먼저 농어민의 날 제정에 있어서 여러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전체의 공감대 한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자리에 계시는 전체의 외부에서나 우리 농민들은 이 농어민의 날을 제정하는데 우리 경로잔치다 이런 식으로 농민을 위로 한다. 아픔을 달래기위해서 하는 날을 제정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오해가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방금도 농어민의 날이 조금 모순이 있지 않느냐 30 ~ 40년 후에 가면 농촌을 알 수 있겠느냐 그 말씀은 맞을지도 모릅니다. 저희들이 농촌에서 자식들을 길러서 대학을 보내서 서울에 취직했을 때 제 아버지 심정도 모르는데 고향을 떠난지 오래된 분들이 알 수는 없지요. 말씀하시는 의도는 이해는 갑니다만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방금 운동적인 측면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나라 역사의 뿌리가 농촌이요, 민중의 뿌리가 농민이라면 그 뿌리를 알 수 있는 정신을 길러줘야 합니다. 그런데 방금 교수님께서 농수산부에서 주관해서 큰 목적달성이 있겠는가 하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농촌에 있을때 정부수립 이후에 제일 자주 바뀐 장관이 농림수산부 장관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 뿐만 아니라 일선에서도 일반 법인체나 사조직에도 '농' 자 달린 그런 조직이 실질적으로 대우를 못 받습니다. 열등의식을 느끼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음에 세계적으로 독립적인 농민단체가 그렇게 수도 없이 많은 나라는 우리 나라 뿐이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회의도 순수한 농민대표들끼리 모여서 농수산부에서 주관하기 이전에 한번 토론을 해 보았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민의 날의 의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만 저는 크게 봅니다. 우리가 먼저 농민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만 국민전체의 공감대를 이루어야겠습니다. 지난번 KBS TV에서 인가 심야토론 때 농산물값이 물가상승의 요인 이된다고 해서 시군에서 어렵게 전화를 걸어 통화를 하고 마지막 결론으

로 대한민국에 정치를 하시는 분, 대학교수님들, 모든 지도자들이 농사 짓는 마음으로 처할 때 민주주의 된다고 고함을 지른 사실이 있습니다만 이런 큰 차원에서 자연의 섭리와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인간본연의 자세로 가는 근본적인 운동에 입각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래서 농어민의 날 제정은 농민이다, 어민이다 생각하지 말고 전체적인 – 조금전에 논설 위원께서 국풍 81 그랬습니다만 국풍 81도 근본목적은 어떤 국민의 뜻을 직결시킨다는 좋은 뜻도 있겠지요 – 자연의 섭리속에서 국민의 뜻을 직결시키는 것이라면 농림수산부 뿐만 아니라 국무총리실, 대통령등 국가적인 측면에서 농민 뿐만 아니고 전 민족의 정신으로서 실시 하는게 바람직하다는 것을 강조 드리겠습니다.

다음 월.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을이냐 봄이냐 두 가지 의견이 나온 것 같은데 저는 절대 봄으로 지지합니다. 우리 농촌의 실정에 지금도 식어갑니다만은 농촌에 보통 어울려서 우리 농민의 행사라고 하기 이전에 회추라 생각합니다. 어렸을 적에 정월 대보름에는 이제는 앞으로 농토에 가서 일해야 된다고 말 머느리가 살짝 비탈을 잡고 운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농촌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농사가 또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 2월 1일은 같이 농사짓느라 수고한다고 소 한테도 음식을 대접하는 풍토도 있고 모를 심은 이후에 7월 공백기간에는 농민들이 어울려서 한잔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다음에 추수 이후에는 우리 민족이 역사적으로 추석이라는 날을 정해서 추수감사절이라든가, 고향을 생각하고 또 선조를 생각하는 제사가 지금까지도 있었습니다만 이번 농어민의 날은 축제를 떠나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운동적인 측면에서 봄에 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실 가을에 농사를 끝냈을 때 저희 농민들의 불평은 많습니다만 정책적으로 어려운 걸로 압니다. 일본이나 대만과 농토규모는 비슷합니다만 대한민국의 영농규모가 영세하기 때문에 사실 가을이 되어서 푸근한 마음을 갖는 농민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푸근해야 축제도 되고 좋은 행사가 되는 것이지 마음도 푸근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어떤 억지적인, 형식적인 축제가 될 것입니다. 또 지금 이 행사가 아니더라도 가을에는 많은 축제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 과거의 권농일은 6월 10일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또 6월 10일은 글자 그대로 권농일입니다. 과거 우리 어릴 때는 하지 전 3일, 후 3일로 인해 서 모심기가 되었는데, 요즈음에는 통일벼로 인해 상당히 당겨져 왔습니다. 모심기 직전에 날짜를 잡는다면 4월 초순경, 이병화 원장께서도 삼월 삼진날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비슷하게 날짜가 나을 것입니다. 4월 초순경 우리가 앞날을 계획하고 희망하는 그런 축제,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보다 아주 잘 사는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농업정책은 정부의 지원없이는 바로 설 수 없기 때문에 모든 행사는 농민단체가 주관해도 행사의 후원은 정부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허을영 (강원 홍천군 임업후계자) : 제가 학교를 졸업하고 1970년도에 농촌에 들어왔을 때 1980년대가 되면 어느 정도까지는 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농촌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농어민의 날 제정 때문에 논의를 벌이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동네에서는 모였다가 하면 농정에 대해서 상당한 걱정을 하면서 매상이 안되면 시위도 벌입니다. 또 올 해 같은 경우 우리 강원도는 여태까지는 옥수수가 주업인데 옥수수농사 까지도 중앙회(농협)에서 농림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양에 의해서 옥수수매상을 하며 전량은 다 수매할지 안할지 모르겠다는 약정서를 건네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농촌이 어렵고, 또 모였다가 하면 정부에 대해서 농림수산부에 대해서 비판이 높습니다. 농어민의 날을 정하는 것은 저도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시기적으로 날짜를 정하고 시기가 어떻고 하는 것은 논의할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 개인의 생각으로는 앞으로 농촌의 향방이 향후 5년간에 진통을 겪어 해결이 되느냐, 또 권위회복이 되느냐 하는 문제가 더 급하므로 조금 더 기다렸다가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용기 (경기 여주군 농민) : 지금까지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

들이 말씀하셨고, 이 회천의원님께서도 현재 한국의 농업은 존폐의 기로에 서있고 또 생사의 기로에 서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공감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농업은 그 나라의 뿌리라고 허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농업은 그 국가에 전략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또 한분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한국의 농정은 정말 부재라고 말씀을 안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농어민의 날을 제정하는 것은 환영하는 바이지만 그보다 더 급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가에서는 농어촌 개발촉진법, 또 농어촌공사를 설치해서 마치 농민을 엄청나게 위하는 것처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구호에 지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 구호에 지나지 않느냐 하면 지금 우리 나라 농산물 값이 국제적으로 볼 때 4배 ~ 5배가 비쌉니다. 심지어 참깨는 13배가 비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현재 방금도 홍천에서 나오신 분이 말씀 해 주셨습니다만 강원도에서 주곡으로 생산되는 옥수수를 다 수매하지 않는다면, 또 콩을 생산하는 것을 계획량이외에는 수매를 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금년에는 유채도 받을 수 없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현재 콩농사가 잘 되어봤자 평당 1,200 원 나옵니다. 그래도 외국농산물 때문에 도저히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농민이니까 백만원을 들여서 오십만원을 수확한다 하더라도 심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심는데 그것마저 수매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걸 볼 때 어떻게 농발법이 필요가 있고 농어촌진흥공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농사를 아무리 열심히 지어도 백만원을 들여서 오십만원 밖에 못건진다면 1 ~ 2년가면 다 도산지경에 빠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농어민의 날 제정은 데모하는 날로 정해지지 않을까 염려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농촌에서 대학을 나와 30년동안 우리 농촌도 잘 살 수 있다, 죽었다 깨어나도 농사를 짓겠다는 그런 자신감에 농촌에 뛰어 들어서 농사를 지어왔던 사람입니다. 대학을 나와 농사를 지으면서 많은 사람의 지탄을 받았습니다. 산을 개간해서 농사할 때 논 팔아서 산을 사는 병신같은 놈이라고 많은 욕을 먹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정말 정부에 대해 농정이 잘못되었다고 불평하는 한 사람으로서 말

씀을 드립니다. 현재 농민의 날, 어민의 날 제정하기 보다는 먼저 우리 농사꾼이, 농민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정부에서 해주지 않으면 농민의 날이 필요없다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생일날 잘 먹자고 열흘 굶는다는 그런 얘기와 마찬가지로 현재의 사정으로는 그렇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 나라 농촌을 보면 마치 계모를 잘못 만나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일전에 한강고수부지에서 8살먹은 남자아이가 손을 뒤로 묶힌 채 물에서 허우적 거리는 것을 마침 주위에서 얘기하고 있던 교회청년들이 꺼내주고 이 아이를 물속에 쳐넣고 도망가는 여자를 불들어 고발한 사실을 여러분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 우리 나라 행정이 마치 그 경우가 아닌가 생각을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어찌 되었든간에 우리 농사꾼이 농사가 수지를 맞고 않맞고가 아니라 마음놓고 농사를 짓을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또 작년에 강원도에서 옥수수를 심으라고 해 놓고 빨리 안가져가서 썩어 이것을 농림수산부에 전화하니까 농협에서 손해를 보는 것인지 농민은 아무 관계가 없으니 괜찮다고 하는 얘기를 했다는 것을 들었을 때 정말 분개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농림수산부에서 농협은 농민의 것이 아닌 것처럼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경우를 볼 때 정말 한심하기 짹이 없다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나라 농산물도 얼마든지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있고, 국제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작물이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보다 허신행박사님은 그 관계에 대해서 자세히 조사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 믿지만 현재 국제적으로 대결할 수 있는 것이 양돈과 양계이고, 국제가격을 봐도 나와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축산관계는 사료의 부가가치세만 면제를 해 주신다면 얼마든지 대결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또 그 작목 말고 다른 농산물은 농민이 생산한 것을 가지고 농민이 가공해서 팔 수 있는 길도 열어 준다면 농민이 살아갈 수 있는 길도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꽉 묶어놓고 농민은 앉아서 죽으라는 지금 심정으로 나가 있어서 제가 몇 말씀드렸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정선(경기 수화농지개량조합장) : 감사합니다. 저도 농촌출신이고, 또 농민단체의 장이기 때문에 말씀을 올릴까 합니다. 우선 저희 농지개량조합은 농민단체에 계시는 분은 대부분 아시겠지만 그 외의 분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전에 여의도 국민운동 – 수세거부운동을 한 그런 단체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농민에 대해서 불평이나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오늘 여기 모이신 분들이 우리 농민단체만 보실게 아니라 예산부처에서도 같이 오셔서 우리 농민들의 어려움을 같이 경청하여 우리 농민들이 얼마나 아우성을 치고 있는가를 좀 듣고 같이 공감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우선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지개량조합은 사실 농민들한테 조합비를 받아 가지고 운영을 했을 때 반당 27Kg 받던 것이 정부에서 배려를 해 반당 5Kg씩 받아 지금은 거의 정부에서 보조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계시는 조일호 국장님이 개발국장님으로 계실 적에 우리의 보조금으로 추가경정 200억원을 경제기획원에 올렸을 때 경제기획원에서는 이것이 전연 필요가 없다고 삭감을 시켜서 국회에 올리지 않는 입장도 있었고, 본 예산 900억원 이상을 올렸을 때 300억 이상 까아서 610억만 국회에 올려서 농민의 입장을 어렵게 만들었는데 오히려 국회에서 100억을 더 증액를 시켜서 그나마 조금씩 유지해가는 실정입니다. 오늘 여기 국회의원이 두 분 나오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것인데 두 분이 지금 안계셔서 더 상세한 말씀은 생략을 하고 농림수산부에서는 농민을 위해서 할려고는 하지만 예산부처에서는 이것을 통용않기 때문에 예산부처에서도 나오셔서 얘기를 들으셔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농어민의 날 제정에 대한 다른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다만 농어민의 날 제정은 어느 때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우선은 추수가 다 끝난 11월 중순이나 말일경에 해 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이유는 농민을 위해서 하는 행사날이기 때문에 농민들이 거의 추수가 끝나고 풍요로운 마음속에서 행사가 이뤄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또 이유중의 한 가지는 농민들이 추수한 것에 대해서 기격보장을 받을 시기입니다. 우리 농민들이 가장 많이 생산을 하고 있는 것

이 수도작입니다. 그래서 추곡수매관계, 보장관계도 정부나 또는 국회의원들이 같이 그 당시 생각을 새롭게 해줄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 다음 여름에 농사를 지어서 가을에 결실을 맺는 달이기 때문에 전부 월동준비도 하고 농민단체 예산배정도 국회에서 해야 되고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그 때쯤(11월 중순)이면 농민들을 위해서 뭔가 생각을 새롭게 해 주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윤돌(전국어민후계자협의회 부회장) : 각계의 선생님들께서 좋은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간략하게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실제 어민과 농민은 다 같이 특수성이 있게 마련입니다. 제가 40년이 넘도록 수산업을 하면서 보면 지역에서 어민과 농민은 항상 연계관계에 있으면서 사업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저희 어민들은 항상 논밭이 바다입니다. 때문에 어느 행사를 해도 특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농민과 어민은 분류해서 행사를 해야 하는 처지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수협중앙회에서 새어민상 등 다각적인 행사를 4월에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저희들은 어민의 권위를 더 한층 발돋움할 기회가 된다면 정부에서, 또 그 산하 농림수산부장관님께서 어민의 예산이나 복지를 수산청을 통해서 저희 어민들은 어민의 날을 별도로 제정해서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오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님께서 주최해서 합니다만 저희 어민들이 소외감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대표자들이 나와 계시지만 각 수협조합장들로부터 많은 불평과 소외감의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최 자체도 한국농림연구원이라든가 이런 주체적인 이야기에는 '어' 자는 진짜 소외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행사가 있을 때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민의 권익, 어민의 소리를 반영해서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어민의 날 제정은 별도로 우리 어민들에게 맡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신서균(충남 도청 농산과장) : 공무원이 여기서 말씀을 안올려도 될것

같으나 그래도 몇 가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농민의 날이 되었든 농어민의 날이 되었든 일단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찬성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날은 어디 까지나 축제의 날이 되고 위로하고 화합하는 날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참여하게 하려면 풍요로운 시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농촌이 잘 산다고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상징적인 표현이 될지 모르지만 봄은 어려운 때고, 가을은 풍요로운 때입니다. 풍요로운 때 하는 것이 효과적인 면에서 더 좋은 것이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또 아까 한분의 말씀이 계셨는데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은 전부 관주도라고 일종의 매도형 말씀이 계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일이 초창기에 이끌어 가려면 관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행사를 하는 데는 돈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돈얘기는 일체 나오질 않았습니다. 정부가 보조해 주어야 한다는 얘기는 한번 나왔지만 정부가 군단위 또는 면단위에서 하는 재정을 전부 대준다는 것이 지극히 어려운 점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각도에서는 군민의 날, 면민의 날로 전군이 다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을 고려하여 나중에 농민단체에서 이것이 환원사업으로 한다든지 재정이 충족되었을 때 받아가시고 또 더 세월이 가서 농민 스스로 자기 자금으로 각출해서 성금으로 운영될 때에는 더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현재 이것을 농민단체에서 3년 임기나 4년 임기로 한다는 것은 결국 농민의 날이 되었든 농어민의 날이 되었든 그것을 상당히 퇴색시키는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민이 이것을 한다는 것은 스스로 자구책으로 자기자존을 위해서 억지로 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기자존을 위해서도 꼭 이 날은 실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농촌경제연구원이나 농협에서 발표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일체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에서 9월 하순부터 대략 10월 상순에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11월이라면 추워서 참여율이 떨어질 것입니다. 의미가 좋다는 것은 좋지만 모든 사람이 참여해서 더욱 화합하고 즐길 수 있는 시기는 현재 추진

하고 있는 시기가 가장 적절한 시기가 아닌가 참고적인 제언을 하고 물려가겠습니다.

조돈하(충남 아산축협조합장) : 오늘 이러한 좋은 자리에 초청해 주신 허원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전내내 많은 토론을 경청했습니다. 저는 실제로 축산과 농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각계 각층에서 오신 분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또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농촌이 폐폐되어가고 생사의 기로에 있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폐허되어가고 생사의 기로에 있는 농민들에게는 날짜를 어떻게 정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경제적 지위향상을 시키고 도·농간의 격차, 그동안의 불만을 어떻게 해소하느냐에 큰 뜻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날짜가 봄, 가을이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을 경제적 지위향상을 시키고 잘 사는 농민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첫째가 정책적인 의지나 정체적인 배려 없이는 농민들이 절대로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저는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같은 충남에 계신 축산 조합장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축산이나 농업을 기간산업으로 정책당국에서 생각을 해 주셔야 되겠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긴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다만 저도 뒤늦게 나마 농어민의 날 제정은 찬성을 합니다. 또 날짜를 어민대표께서 말씀하셨는데, 참 좋은 말씀입니다. 또 KBS에서 말씀하신 시기 말하자면 온도 얘기였습니다만 저도 동감입니다. 어떤 축제가 되었든 어느 모임이 되었든 행사를 할 때에는 어느 시기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집약을 하겠습니다만 어떤 외부행사도 외부체온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11월은 추워지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집결시키는데 굉장히 지장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어민대표께서는 4월로 말씀을 하셨는데 제생각은 4월로 하는 것은 좋지만 11월만은 반대의견을 제시하면서 이만 물려가겠습니다.

강춘성 : 점심시간 이전에 제가 기회를 얻었습니다만 그 때 여기에서 모

신 귀빈들께 불경스런 말을 했다 해서 주제에 따른 토론기회를 주지 않으셔서 서운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젠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농민을 위로한다, 보상한다, 또 자긍심을 갖도록 한다는 측면에서의 농어민의 날 제정은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것도 농민을 우롱하기 위한 사탕발림식의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아까 원장님께서도 농업을 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고통을 당하고 있는 농민 스스로는 자기가 뿌리라는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처절한 삶, 어찌할 수 없어서 살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농업·농민문제를 농업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통치권자가 농업을 꼭 살려야 되겠다는 확고한 의지(국가기간산업으로서)가 있든지, 그렇지 않으면 농민 스스로가 또는 여기 오신 학자라든지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국민적인 합의를 도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농업을 경시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이 나라가 이렇게 부흥했지만 서울이 안고 있는 고통이 얼마나 큅니까! 간접적으로 주택이라든지 도로라든지 교통, 환경, 하수, 상수, 기타 범죄 등 결국은 농업을 외면한 결과들입니다. 서울에 돈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그 분들이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농촌입니다. 또 한 가지 안전한 식량공급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안전한 식품을 보급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온 국민의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축제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농업의 중요성, 농촌을 살려야 된다는 것을, 거기에 종사하는 농민의 역할을 한번 더 인식하는 온 국민의 날, 국민 모두가 합의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농어민의 날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휴일로 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농업에 대한 인식을 농민에 대한 인식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농민 아닌 도시민들, 농업이 외의 국민들이 공식적인 인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공휴일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박 경수의원께서 말씀하신 11월 11일 11시에는 11분까지 덧붙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먼저 11월에 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 나라 농업하면 경종

농업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쌀 농사짓는 일반 경종을 하는 농민입니다. 바로 이 날을 하자 하는 것도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자는 것입니다. 그 외에 일년내내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은 잘 삽니다. 잘 살기 때문에 피해의식이 거의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일부 있기는 합니다만, 역시 이 날을 정하자고 하는 이유가 경종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였다 하면 그 분들이 수확을 해서 가장 마음에 푸근한 생각을 갖고 축제에 임할 수 있는 계절은 언제이겠습니까? 수확하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11월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11월 이전은 바쁩니다. 남쪽지역은 11월 초순이 되어도 보리를 심기 때문에 바쁩니다만 그래도 11월 11일 정도가 그렇게 춥지도 않고 적당한 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왜 11분까지 해야되는가 그것은 농민이 갖고 있는 시간관념과 국민이 갖고 있는 시간관념을 바꾸는게 좋겠느냐는 뜻에서 분까지 쪼개 쓰는 농민이다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주최는 농민단체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충남북에서 오신 공무원들께서 이것은 농민자치적으로 못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이제 농민들도 농민 스스로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농민단체가 주최가 되고 후원은 정부가 해 주어야겠습니다. 또 농민의 회생속에 오늘날 이렇게 성장한 우리 나라 기업들이 많은 돈을 내서 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국민의 합의를 도출시키기 위해서는 기업인들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전제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행사내용에 있어서는 중앙단위는 간단한 기념행사도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농업정책에 대한 개발을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또는 1년동안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농업기술에 대한 중요한 발표의 장소, 정책에 대한 개발 또는 기술에 대한 발표를 하는 장소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도시민들이 농민, 농촌, 고향, 그리고 농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도시에서도 큰 잔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에도 그런 예가 가끔 있습니다만 농촌문화를 고양시키는 어떤 경연대회라든지 향토식품을 먹도록 한다든지 판매를 한다든지 전시를 한다든지 또 농업기자재를 전시한다 또 회사별로 경쟁

을 시킨다 그런 측면이라든지 또 중앙단위 품목별 경연대회 등 동시에 치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방행사는 지방자치단위 – 군단위 – 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농민 스스로의 축제가 되어야 되겠고, 동시에 농민 스스로가 희망을 가지면서 스스로가 결속해야 된다. 또 우리 농민의 문제는 농민 스스로가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간절한 의지를 한번 더 다짐해야 된다는 뜻에서의 지방 행사 – 기분만 좋고 하루 기쁘게 지나는 그런 행사가 아니고 한번 더 나의 위치를 다짐하는 그런 행사 – 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흔히 보면 선수들만 모이는 체육대회를 주로 합니다만 그런 것을 떠나서 농민이면 누구나 다 참여하고 참여한 농민이 모두 할 수 있는 어떤 경기를 마련하고 요사이는 농기구가 많이 도입되었으니까 농기구를 조작하는, 또 현장경작대회에서 조작하는 어떤 경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농업의 중요성을 배제한 농민의 날은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농업의 중요성을 농민만이 아니고 또 농업관계에 계시는 분만이 아니고 온 국민의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농민의 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정근진 : KBS 부국장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기온이 그렇게 내려가면 어떻게 야외행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연구를 많이 해서 고맙습니다만 보다 깊은 연구를 했으면 좋겠는데 바로 이것을 보여드릴려고 제가 시간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1988년부터 3년째를 맞는 한노대회입니다. 이 책은 허신행 박사님께 드리고 가겠습니다. 왜 제가 시간을 얻었느냐 하면 어민의 날은 어민에게 맡겨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4월에 해야만 우리 행사가 원만하게 끝납니다. 그리고 바다행사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노젓기도 하고 바다도 많이 활용을 하고 이러는데 11월은 어림도 없습니다. 하느님이 와서 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다는 바다의 특성을 살려서 해 주셔야 합니다. 때문에 결론으로 어민의 날은 별도로 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정부차원에서 경비문제 등 여러가지 문제로 동결해 갈 수 밖에 없다면 꼭 4월에 해 주시고, 4월로 기일을 해

주시지 않으려면 우리 어민들은 빼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해 : 지금 이 어려운 시점에 농민·어민·축산을 나누신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그럼 축산의 입장에서 축산을 나누자고 하겠습니다. 축산도 나눠야 합니다. 왜 어민만 나눕니까? 이것은 참 어긋난 이야기 같습니다만 사실 많은 사람도 아닌 1차생산품의 생산자들끼리 의견조정이 안돼서 어민은 어민대로 나간다, 축산은 축산대로 나간다, 농민은 농민대로 나간다 하면 어느 세월에 모여지겠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다음에 다시 한번 토론을 하더라도 이 문제만은 농민·어민 서로 나눈다는 얘기만은 않고 하나의 합일점을 찾고 날짜를 잡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하지 않나 생각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민대표께 대단히 죄송하지만 정말 어민, 농민 나누자는 얘기는 안하셨으면 합니다.

권영달 : 우선 농어민의 날 제정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그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정신적으로 농어민의 날은 온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였습니다만 의식을 전환하는 정신적인 계기가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농수축협은 민주화의 틀이 섰습니다. 그러나 공직자들의 보는 시각이 아직까지 민주화에 의한 시각으로 보지 않습니다. 누구보다 더 농민들을 잘 알고 너무나 농민들의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농민들의 대표자가 돼서 모든 여론에 우리의 입장을 대변해 달라는데 각 기관이나 공직자들이 아직까지 가서 얘기를 하면 직선제 조합장이 되더니 목에 힘 주는구나 이런 시각으로 받아 들이는 예가 아직도 많습니다. 아직 까지 우리 나라 민주화는 농수축협에서 첨단을 걷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민의 날은 우리 농민들을 실질적으로 정신적으로 도와주는 날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기회를 빌어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KBS에서 나와 계십니다. 배추 한 포기가 갑자기 1,000 원이나 1,500원이 올랐으면 마치 그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물가가 올라가는 것으로 비춰집니다. 사실상 농산물이라는 것은 계획 생산을 할 수도 없고 모든 기후조건에 의해서 기복이 많습니다. 그런 관계로 인해서 일시적인 그런 현상을 앞으로는 좀더 농촌의 어려움을 고려하셔서 아픈 사람에게 더 아픔을 주는 일이 없도록 참작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명채(농경연 농촌사회·복지실장) : 제가 지금껏 여러분들의 고견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내놓은 안 자체가 무엇을 꼭 주장하고 내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의 토론에 큰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 것은 초청하신 분들께 저희들이 자료를 미리 배부해 드렸으면 좋은 토론이 될텐데 자료가 늦게 발송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어민 순수단체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해 본적이 있느냐고 아까 어떤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오래전부터 농어민단체들이 이런 얘기들을 주장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예산상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계기를 마련하지 못했는데 저희들이 이젠 그런 것까지 모두 포함해서 했다는 점, 저희들이 관에서 돈을 받고 있기 때문에 관주도형으로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신다면 그렇게 생각 안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어민단체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여러분들을 또 모셨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토론에서 농어민의 날 제정에는 거의 모든 분이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봄 4월과 가을(10월, 11월) 대략 이렇게 집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어민문제는 별도로 다루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특수성이 있다는 것을 감안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는데 사실은 이러한 날짜를 정하는 것은 총무처 소관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분리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어떻게 감안해서 할 것인가 하는 면에서 저희들이 한번 안을 만들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완전한 것을 원하는 경우에는 어떤 명칭도 걸지 못할 경우가 생깁니다. 그것

때문에 싸우면 농민의 날, 어민의 날 아무 것도 못 얻어내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농어민의 날로 만들어서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어민의 날을 또 하나 만들어 내는 방법도 있지 않겠는가 저희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1월은 좀 춥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온도관계 통계를 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서울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의 여러 자료를 모아가지고 최적일을 저희가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석은 9월중에 들어갑니다. 자꾸 10월중이라고 말씀하시는 데 대개 9월중에 들어갑니다. 제가 추석이 생일입니다. 그래서 잘 아는데, 9월이면 아직 추수가 끝나지 않아서 애를 먹는 시기이고, 또 국민 모두의 명절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빌붙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 농어민의 날의 중요성이 불식화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생겨서 이점은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4월이 여러 가지로 좋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비닐하우스나 유리하우스를하시는 농가에서는 그 때가 한참 수확기로 바쁜 때입니다. 경북 성주나 이쪽에 가보면 비닐하우스에서 참외나 수박을 하는 사람들은 그때가 매우 바쁜 시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을 택해도 문제가 되는 부분은 항상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고려해서 가장 많은 수, 그리고 그중에 대중적으로 꼭 참여해야 될 사람들이 빠지지 않도록 하는 날짜를 골라 정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행사방법은 농어민이 주체이고, 실질적인 주체가 되는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누구도 반대하시는 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날짜는 하루를 정해서 하되 기간을 앞뒤로 해서 축제를 유치하는 방법으로 해서 완전한 축제기간을 만들자 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 점에 대해서는 똑같은 생각입니다. 앞으로 농업생산이나, 어업생산이 품목별로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조직이 강해지고 앞으로는 그것이 발전해서 지역별로 특화될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또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농어업이 살아가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방자치제가 실시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바로 그 특화된 지역의 생산품목, 즉 조기면 조

기, 고추면 고추 등 그 생산 농어민단체의 장이 굉장히 중요한 정책파트너가 됩니다. 그럼 이 정책파트너가 된 농어민생산단체의 행사가 어쩔 수 없이, 그 지역의 주된 행사로 어필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축제가 되고 그렇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은 저절로 될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서 고추가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면 고추를 선전해야 합니다. 능금을 선전해야 되고 그럼 능금으로 만든 모든 점이니 술이니 이런 것들을 그 때 서울에 계시는 손님, 대구에 계시는 손님들을 여러 곳에서 모셔다가 맛보이고 하는 행사가 되어야만 그 지역이 선전도 되고 그 농산물이 잘 팔려서 그 지역에 발전이 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로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식으로 발전이 되면 상당히 좋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그런 방법으로 발전할 것을 저희들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하시면서 앞으로 그 외에도 더 많은 참고가 될 만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전화로, 그리고 직접 오셔서 말씀하시면 더욱 좋은 참고가 되고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박순진 :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농어민의 날 제정을 하는데 있어서는 각 업종별로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 국가발전에서의 농어민의 역할을 부각시키고, 농어민의 노고를 위로하는 계기라고 정리해 본다면 여기서 좀 혼란을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농어민의 역할을 부각시키기 위해 날짜 지정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농어민의 노고를 위로하는 계기라고 하면 농민의 노고를 위로 해 주는데 누가 해 주느냐 정부하고 국민이 해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농민 자신이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날짜지정이 좀 명확하기가 어려운 혼란상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어민의 역할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행사하고 연관시켜서 해 보아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농민의 날을 제정해 행사를 하는 데 중앙단위하고 지방단위로 구분해서 하게 되어 있잖습니까? 그 때에 이 농어민의 날 제정을 중앙단위로 하고 지방단위의 행사와 연결을 시켜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또 농어민의 노고를 위로하는 계기로 하기 위해서는 사기를 높인다

든지 소외감을 갖기 때문에 소외감을 줄인다든지 또는 그 피해의식이 아까 말씀에 많이 나오셨는데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만 이런 피해의식을 어떻게 하면 위로 해 주느냐 하는데 배려를 많이 해야하며, 이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온 대로 11월에 농민을 위로하는 것이 적정기가 아니냐 이렇게 볼 때에 중앙단위행사는 농어민의 역할을 부각시키고, 1년농사를 우리가 풍년을 기원하고, 또 요즘은 과학영농을 하고 과학기술이 많이 발전을 하고 이제는 상업영농시대를 맞이해서 특히 수입자유화로 외국농산물이 수입되는 과도기적이고 가변적인 이러한 시기에 연초작년농사를 반성하고 평가해 우리가 작부체계라든지 품종선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후와 풍토조건에 의해서 어떻게 소득작물을 개발해서 소득을 올리느냐 하는 치밀한 영농계획과 다짐도 하기 위해서 소위 농어민의 역할을 부각시키는 의미에서는 4월 농사짓기전에 함으로써 의의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공휴일로 하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게 생각합니다. 그것보다 지방단위로 기간을 설정해서 예를 들면 농협 전직원이 그날은 자기고향으로 가든지 자기 관내 단위조합으로 가든지 농민으로 가든지 그 날 하루는 무슨 일이고 가서 농민을 도와주고 도시민은 자기 고향을 찾아가서 부모형제를 찾아 본다든지 여러 가지 농기계를 보낸다든지 이렇게 해서 농민들을 위하는 기간을 설정해서 그야말로 농민을 위하는 날로 농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체적인 면이 강조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길부 : 농어민의 날이 농어민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국민총화적인 화합의 날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은 여러 토론자들이 공감을 하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객관적인 상황이 상당히 중요한데 KBS 김성배 부국장님의 행사하는 날에 날씨, 즉 외부기온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민들이 시골에 내려와서 농민들과 어우러져서 이 행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른 또 하나의 객관적인 상황이 생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토요일, 일요일 저녁에 서울을 향한 모든 길은 만원입니다. 어느 날은 중부고속도로가 상당히 한가한 고속도로인데도 불구하고 서울서 이천까지 밀려 있습니다. 차 지붕을 걸어서 이천까지 갈 수도 있을 정도로 차가 밀려 있습니다. 이 농어민의 날도 도시민들이 참여를 할 수 만 있다면 이렇게 교통에 혼잡이 되리라 예상이 되는데 추석날은 어쩔 수 없이 이런 교통의 혼잡이 생깁니다. 이것이 1년에 2번, 3번 생기면 추석날을 제외하고 또 농어민의 날 교통혼잡이 생기면 나는 다시는 안가겠다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도시민이 농촌에 내려올 수 있는 날은 지금 현실적으로는 추석이 가장 적합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정 박사님이 추석에 빗대가지고 하면 농어민의 날이 의의가 좀 떨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에 조금은 더 강조를 해서 추석에 빗대는 것이 아니라 추석날 그 날 자체가 농어민의 날이 아니고 그 다음날 해도 좋고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사람들이 다 모일 수 있는 현실적인 가능한 날은 추석날 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으로 이 문제를 객관적인 상황을 고려한다고 하면 교통문제와 현실적으로 가능한 인원동원문제, 이 세 가지는 추석날이 가장 적합하지 않겠는가! 오늘 이 토론장에도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행사에서 인원동원입니다. 농어민의 날에 도시민이 참여하지 않고 농어민만 한다면 사실 큰 의미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고일웅(농촌진흥청 지도개발과장) : 딱 3가지 면에서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경향을 보면 수산계통에서 4월 얘기 또 농협조합장님들 4월 봄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순수 농민자생단체의 대표분들에게서 이상하게도 11월 11일 11시가 강조되고 있는데, 그 문제는 전통성을 이어받은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아까 농촌지도자중앙회의 사무총장께서도 과거 원성군에서 26년전 그 행사가 시작되었다 하는데 제가 당시에 실무업무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내용을 소상히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시 원성군에서는 농촌지도자들이 도시락을 싸 가지고 나와서 운동장에 모여 공적인 비용은 소 한마리 잡고 술 사는 것 외에, 그리고 작목별로 그 분야에 가장 우수한 농가가 만든 화판을 내걸

고 전시도 하고 소개도 하고 그러면서 농악놀이도 하는 이런 행사로 처음 시발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점차적으로 지역에 파급되다가 순수하게 농촌지도자, 농업기술자협회 또 다른 단체들까지 영향을 입어서 그 날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순수한 농민자생단체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전통적으로 왜 그날이 되었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아까 KBS 부국장님도 조사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저희 농촌진흥청에서도 행사가 많기 때문에 11월 상순, 10월 하순 등등 기상이나 또 강수조건이나 기타 등등을 놓고 분석을 해보고 저도 이번에 오기 전에 그것을 쭉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강원도의 영서지역이나 경기도 한수이북지역은 역시 야외 행사는 부적합합니다. 그러나 충청도 이남지역은 농사가 다 끝나고 또 여러 가지 마무리도 끝나고 보리농사까지도 다 끝내 놓고 하기 때문에 농민들의 마음에 여유가 있고 그래서 11월 11일이 비교적 상당히 파급을 했지 않았느냐 이런 측면에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농민들의 순수한 입장에서 11월 11일이 26년동안 전통으로 이어졌다면 그 날을 정부가 뒷받침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고, 다만 수산분야의 문제는 별도로 고려대상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또 이 행사와 꼭 관련해서 농어민의 날 제정문제를 거론하고 있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장관이 바뀌면 기념식 한번하고 끝나고 또 어떤 의욕이 있으면 대대적인 행사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의 한계, 그것은 저가 생각할 때는 기념식을 통해서 농민들 전체의 사기를 고무시키는 또는 격려를 해주는 시상을 한다든지 또 결들여서 간단히 할 수 있는 어떤 농정에 대한 비전을 제시한다든지 또는 어떤 농정 대토론회나 발표를 한다든지 하는 정도는 농림수산부가 주관을 해도 그런 정도 행사는 매년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매년 수많은 돈을 들여서 대대적인 행사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사실상 지속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논의를 한다면 그런 기념식은 정부가 주도를 하고 결들인 여러 가지 행사들은 농협도 있고 순수한 농민지도자, 농업기술협의회나 또는 강회장님이 계시는 그런 파트나 이런 데에서도 각자의 특성에 맞는 어떤 전시적인 또는 품평회, 경진대회 이

런 것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것들은 어느 날짜가 지정된다고 한다면 그것을 행사주간으로 해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되, 다만 그것이 연초부터 구상이 돼서 이루어진다고 하면 총괄적인 농어민의 날 행사주간으로서 종합적으로 그것을 수렴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지 지금부터 농어민의 날 행사는 대대적으로 그런 품평회도 하고 하는 등등의 전제를 두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연(수산청 협동조합과장) : 먼저 어민들은 한결같이 날을 따로 정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또 그리고 오늘 공청회는 농어민들의 직접적인 소리를 들어야 하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 말씀을 안드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통일된 목소리가 나오게 된 경위를 설명함으로써 오늘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에게 혹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 과정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어민들은 그 동안 수차 어민의 날을 정해달라는 건의를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1978년도에 어민의 날이 있었습니다. 수산청 고시로 4월 1일에 어민의 날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 해 정부의 행사 간소화방침 때문에 중지되고 수협에서 자체행사로서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제 정식으로 우리도 정부의 지정을 받기 위해 작년도에 저희가 각 시도 어민단체에서 의견을 수렴을 했었습니다. 그 때에 수산관계의 모든 행사가 4월로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민의 날 보다는 수산의 날로 해서 범국민적인 동의를 구하는 그러한 행사를 하자고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무처에 요구한 결과 어민의 날은 지정할 수가 없다. 그것은 정부 행사감축방침에 어긋나기 때문에 안 된다 했습니다. 현재 수협, 원양협회 등에서 정부에서 인정을 안하면 순수민간 행사로서 수산의 날을 하자, 또 최근에 와서는 해양분야까지 포함해서 바다의 날로 정하자 이러한 민간주도의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차제에 어민의 날을 11월로 하자 이렇게 나오니까 수산계통의 전어민 또 전업계 모두가 반기를 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어민들이 여러가지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부언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바다에서

의 11월달 행사라는 것은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께 거듭 설명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때문에 날짜에 대해서 왜 수산에서 저렇게 하느냐 하는데 농업은 신축성이 있습니다. 수산은 4월에 안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농민과 어민을 나누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4월에 해야만 현재 풍어제라든지 모든 행사를 집약해서 그대로 충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참고로 해 주셔서 어민대표들이 말씀하셨듯이 농어민의 날이라고 해가지고 11월에 정할 바에는 '어' 자를 빼서 순수민간행사로 어민의 날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호** : 여러가지로 대단히 감사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입장이나 말씀을 듣고 제가 종합적인 정리를 해야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모아지는 입장은 농어민의 날을 정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첫번째이고, 두번째 말씀은 낙후된 농어민을 돋는다, 동정한다 그런 차원보다는 떳떳하게 산업화사회에 있어서 농업이나 농어촌·농어민이 갖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기능을 인식시키고, 또 거기에 대해서 국민화합적 차원에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으로 집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본적 취지를 살려 가지고 날을 정하는 방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행사의 날짜나 시기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많이 토론하는데 수산, 축산 또 지역별사정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어떤 상정적인 날을 하루 정하고 그 부분에 맞는 행사를 서로 따로 할 수도 있는게 아닌가 합니다. 상정적인 의미로 지방단위를 총괄해서 하는 것은 11월에 총결산을 하되, 수산은 4월에 하는 것이 훨씬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행사들은 지역별로 해서 연중행사들이 총매듭되어 마지막에 하나의 방점을 찍는 그러면서 서로 종합도 하고, 회고도 하고, 반성도 하는 그런 날짜로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너무 단적으로만 생각을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는 시기별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날이 될수 있도록, 따라서 농어민의 날을 하루 정한다고 해서 수산행사가 전혀 거부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연중 여러 가지 행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행사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가 중앙단위에서 총괄을 하고 또 지역단위에서도 할수 있는 여러 가지 길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생각을 하면 좋은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회 :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전 2시간 오후 3시간, 오랜시간에 걸쳐서 많은 분들이 토의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공청회입니다. 그리고 한정된 모임이고, 또 한정된 분들이 오셔서 토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사회자의 입장에서는 오늘 결론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저희 연구원이 장소를 제공해서 여러분들이 오시도록, 그리고 정부와 농어민 대표들이 각계에서 오셔서 충분한 토의를 함으로써 이 분야에서 직접 정책을 담당하시는 분이 충분히 듣고 돌아가셔서 당국에서 충분한 참고로 삼을 수 있도록 해드리는 데 기본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많은 사람의 토의를 통해서 만일 일관되게 나왔다고 한다면 거의 우리가 중심을 잡고 나갈 수 있다고 봐 지는데 오늘 여러분들께서 보신 바와 같이 농어민의 날 말 자체에도 농민의 날, 어민의 날 이라고 하는 견해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농어민의 날 제정 자체에는 모두 찬성을 하는 것 같은데 목적이라든가, 날짜라든가, 내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오늘 쏟아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책당국에서는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 결정을 하는데 좋은 계기가 되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없고 정책당국이 참고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데 자위를 느끼면서 앞으로 여러분이 돌아 가셔서 혹시라도 또 추가로 말씀하실 것이 생기면 정책당국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의견을 제시해 주시리라고 믿고, 또 정책당국에서도 아마 여러분들이 제시한 바와 같이 협의도 하시고 여러 가지의 연구가 있지 않았겠는가,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믿으면서 오늘 이 공청회를 마감짓겠습니다.

## 開　　會　　辭

오늘 當 研究院에서는 “農漁民의 날” 制定에 관하여 公聽會를 開催하게 되었습니다. “農漁民 날” 제정은 그 자체의 有無의 중요성보다는 국민이 갖는 농어민에 대한 애정 및 우리 農業을 어떻게 볼 것인가 더 나아가서는 國民精神이 건강한가 아닌가와 관련된다고 봅니다.

2백여년전 프랑스의 미라보라는 社會學者는 農業은 나무의 뿌리이며, 工業은 줄기이고, 商業은 잎에 비슷한 바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意味를 갖는 것인가에 관하여는 망은 研究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農業이 산업으로서 차지하는 比重의 過多에 관계없이 나무의 뿌리와 같다 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30여년간의 經濟發展過程에서 우리 나라의 農業이 실제로 수행하여 온 役割을 보면 전통적인 文化를 보존하여 왔고, 어려운 농촌의 여건 속에서도 教育을 시켜 훌륭한 人力을 공급하는 등 產業發展에 지대한 공헌을 하여 왔습니다. 이런 것으로 보았을 때 農業이 國家經濟의 뿌리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 30여년간의 經濟成長過程에서 익히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우리의 農業·농촌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사양화, 쇠퇴화, 낙후화되고 있어 農業·농촌은 經濟的으로나 文化的으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가경제 전체는 難局을 맞이하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認識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結果가 나타났습니까? 이것은 都市文化의支配다시 말하면 이윤만을 추구하는 拜金主義, 대량생산의 기계화, 沒人間化, 향락·퇴폐산업의 번영, 公害問題, 도시범죄문제 및 불법집단행동 등 都市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대부분의 과정은 거의 脫農本主義的, 脫農業的, 脫傳統的인 것으로 우리의 思考方式이 됨에 따라 발생하는 病理現象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때문에 우리 經濟의 어려움이 加重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100여년간 세계를 지배한 美國의 경우를 보면 美國人의 根低에는 青教徒의 정신, 實用主義의 철학적 배경이 있습니다만 그 밑바닥에는 카우보이라는 農村의 精神이 깔려 있습니다. 農民이 전체 국민의 2% 조금 남짓하나 카우보이적인 精神이 온 國民의 마음속에 자리잡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經濟難局을 극복하기 위하여 고향을 찾는 새로운 精神, 우리가 왔던 흙으로 다시 돌아가는 精神을 우리가 새롭게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재 14개의 公休日이 있고, 30여개의 多樣한 行事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 3개 정도가 우리의 農漁業과 관련되는 行事로 알고 있는 데, 이것들은 대개 일을 독려하는 性格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農漁民의 날” 制定은 아마도 새로운 故鄉을 찾는, 새로운 精神의 滋養이라는 것이 基本的으로 깔려 있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晚時指彈의 感은 있으나 “農漁民의 날” 制定에 관한 公聽會를 當 研究院에서各界의 著名하신 代表者를 모시고 開催하게 될을 無限한 福光으로 생각합니다.

感謝합니다.

1990. 6. 10.

韓國農村經濟研究院長 許 信 行

## 附錄1.

## 參 席 者 名 單

座 長 許 信 行 (農經研 院長)

主題發表者 鄭 明 采 (農經研 農村社會·福祉室長)  
朴 淳 鎭 (農協中央會 農村開發部長)

討論參加者 朴 炳 秀 (國會 農林水產委員, 民自黨)  
李 熙 天 (國會 農林水產委員, 平民黨)  
金 一 鐵 (서울大 社會科學大學長)  
趙 壹 鑄 (農林水產部 農業構造政策局長)  
申 成 淳 (中央日報 論說委員)  
金 聖 培 (KBS 報道製作局 副局長)  
姜 春 成 (全國農民團體協議會 會長)  
李 秉 華 (國際農業開發院 院長)  
李 京 海 (農漁民後繼者協議會 會長)  
권 기 술 (전국농업기술자협회 부이사장)  
동 열 모 (전국농촌지도자중앙회 사무국장)  
권 세 원 (경북 안동군 농민)  
진 길 부 (경기 이천군 농민)  
정 근 전 (전남 여천군 어민)  
이 용 섭 (충남 직산농협조합장)  
박 용 열 (경기 강화수협조합장)  
정 달 영 (충북 충주축협조합장)

## 附錄2.

## 招 請 者 名 單

金 泰 福	(충남 홍성군 농민후계자)
金 榮 鶴	(강원 화천군 농민후계자)
崔 鉉 玄	(경남 양산군 어민후계자)
朴 鍾 聖	(충북 청주시 원예 농민)
柳 善 植	(전북 완주군 과수 농민)
許 乙 寧	(강원 홍천군 임업후계자)
姜 鎬 範	(경기 양평군 양서단위조합장)
金 鍾 烈	(강원 원주군 소초단위조합장)
權 永 達	(충북 청주시 청주단위조합장)
尹 昇 赫	(전남 나주군 남평단위조합장)
崔 友 千	(한국마사회 마사부장)
申 喜 相	(농어촌진흥공사 농업구조개선본부장)
金 鍾 亨	(한국식품개발연구원 행정실장)
趙 東 玉	(농수산물유통공사 비축부장)
高 一 雄	(농촌진흥청 지도개발과장)
曹 佑 衍	(수산청 협동조합과장)
朴 鎬 夏	(산림청 기술지도과장)
李 麟 輽	(경기도청 농어촌개발계장)
李 根 洪	(강원도청 농산과장)
申 瑞 均	(충남도청 농산과장)
成 圭 煥	(경북 상주시 상주단위조합장)
崔 之 慎	(전북 군산시 군산시수협조합장)

趙 敦 河	(충남 온양시 아산축협조합장)
成 宗 均	(경남 거창군 거창산림조합장)
李 貞 善	(경기 수원시 수원·화성농지개량조합장)
申 英 燉	(축협중앙회 총무부장)
李 性 讚	(수협중앙회 지도부장)
河 上 鎬	(산림조합중앙회 개발부장)
宋 在 淳	(농지개량조합연합회 총무부장)
安 世 景	(전북도청 농어촌개발과 소득계장)
宋 在 休	(경남도청 농업기사)